



時 計 塔

SIGETOP



2012년 7월 20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9권 3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金 一 泳
편집인: 金 炳 哲

편집위원: 徐 亮 李 元 澤
徐 仁 錫

자문위원: 盧 鎔 冕 李 熙 景
許 善 行

就 任 辭

신임회장 김 일 영(71)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 후배님 동문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동창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중책을 부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
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임 선배 회장님들 특히 문대옥 회장님과 임원진들
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전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
니다.

우리 모두는 역대 회장단의 노고와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계승 발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본인은 여러모로 경륜과 리더쉽이 부족하여 막중한 소임을 다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동창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협조가 있을 것으로 확
신하며 미려하나마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정을 떠난 지도 수십 년 강산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세
월이 유수 같고 시위를 떠난 활과 같습니다.

서로 자주 만나 마음을 나누며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할 때동창회는
더욱 발전과 활성화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창회는 따뜻한 정이 오가
는 인간적인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화합과 동창의식으로 하나가 되는 동창
회가 되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검토 후에 반영하고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역
량을 발휘해서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 하겠습니다.

동창회를 위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동창회 모습을 보
여줄 것을 당부하고 품위와 품격을 한 차원 격상시키고 결속력이 있는 동창회
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누구나 고향에 머무르고 싶
은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 땀 흘리며 생활에
몰려 있다가도 문득 떠올리는 학창시절은 힘을 북돋워주고 평온함과 위안을
안겨 줍니다. 한번쯤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모교가 친근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을 포용할 것임을 믿습니다.

내년에는 제30차 학술대회 convention을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Palm Pacific Hotel에서 3월 14일 reception이 있고, 15, 16일 (3박 4일) 이를 동안
CME 및 non-CME, 그리고 골프토너먼트가 있었습니다. 컨벤션 준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미있고 유익한 컨벤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스
며 또한 멀리서 참석하시는 동문들을 위해 대회가 마치고 17일부터 3박 4일 정
도의 근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골프 코스는 LPGA 토너먼트를 치르고 리모델링하여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
니다. Hotel room들도 모두 refurbish하여 예년에 비해 많이 좋아져서 동문여러분
께서 안락한 분위기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창회는 동문 모든 분들이 주인입니다. 동문 한 분 한 분이 주인 의식을 바
탕으로 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동창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대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동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에 든든한 초석
을 놓는다는 신념과 다짐으로 동창회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아무쪼록 선후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당부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온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동창생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참여와 협력, 그리고 영
광이라는 동창회 운영의 기본방향을 살려, 서울의대인 모두가 뜨거운 가슴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창회란 모든 동문들의 것이고 모든 동문들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동문들이 적극 협조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훌륭하신 선배 회장님들께서 열심히 닦아 놓으신 터전 위에서 모든
동문님들과 함께 겸허한 자세로 일해 나간다면 어떠한 힘든 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디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동문님들과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
합니다.

저는 오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동창회 활성화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창 여러 선, 후배님들과 합심하
여 십시일반 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 선, 후배님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 협조해 주십시오!
- 지원해 주십시오!
-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동참해 주십시오!

離 任 辭

회장 문 대 옥(73)



“한 번 더 하지 그래?”
“그런데 다음에는 마나님이 회장을 하고 본인은 부회장을
하라구...”

Cruise가 끝나고 던지신 어느 선배님의 농담을 되
새겨 본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노후대책이라는 용어에
갈수록 민감해 지는 터에 섬뜩하기는 했지만, 일 년 동안만
이라는 시한부 전제하에 지난 한 해를 함께 달려오면서 본
업을 재쳐놓고 눈치코치도 없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남편
을 열심히 내조해준 마나님을 더 이상 부러먹지만 말고 이제부터라도 잘 모시
라는 뜻인 것 같다.

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의 흔적을 지니고 우리 모두 하나 된 사랑하고 존경
하는 서울의대 동문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고맙게도 300명 이상의 많은 동문과 가족들의 참여로
대성황을 이룬 Convention 그리고 더불어 병행된 새로운 Cruise, 이제껏 거리 때
문에도 서로가 소원했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Teleconference를 이용한 대의
원회 모임의 시도, 막대한 특별 기금을 통하여 성사된 여덟 쌍 부부동반 레지
던트 동문들의 convention 참여, Convention 기간 중 CME/ non-CME/Golfing 등
모든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험과 또한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Business Meeting과 역대 회장단 간담회 신설, 새로이 임명된 Office Manger를 통
한 사무행정의 Computer화 및 E-mail의 활성화, 이사회 및 대의원회 모임의 효
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power point Presentation 도입, Office management
committee의 부활, 아직 마무리는 못 지었으나 자랑스러운 우리 2세 자녀들 중
의사되는 자녀들로 구성되는 Network 형성이 수록될 새로운 주소록 준비 등,
얼핏 스쳐가는 이런저런 일들---,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며 혼신을 다 했던 많은
분들에게 먼저 감사할 뿐이고,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을 새롭게 추
구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못 다한 일도 많은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그나마
앞으로의 동창회의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보다 연륜과 지혜가 출중하신 선배동문님들의 권고로 역부족한 저에게는
중적인 회장 취임사를 준비하면서 씁쓸한 열정으로 신념을 가지고, 그 위에 불
을 붙여 눈앞에 그림을 그리며 앞으로 일 년 동안의 업무를 마음속에 준비하
던 그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 지나고 이임사를 하게 되다니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껏 희생과 봉사를 감수하고 동창회를 위하여 제각기 나름대로 소신껏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셨던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회상해보며,
이번에도 많은 미주동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멀리 서울에서 달려오신, 매년
Convention 날짜를 미리 우선적으로 챙기시고 꼭 참석하여 후원해 주시는 강신
호 명예회장님, 그리고 갈수록 활기를 부여하는 전체 서울의대동창회의 박용현
동창회장님, 정회원 대학병원장님을 망라한 한국에서 오신 많은 선후배 동문님
들, 특히 안간힘을 쓰며 노심초사하는 안쓰러운 친구를 생각하여 멀리서 함께
한 13명의 한국동기들 및 도합 60명의 자랑스러운 우리 동기가족들에게 이 자
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해에도, 아직도 극소수의 참여에 불과한 안타까운 후배동문님
들에게 동창회에 대한 존재가치 부여와 참여에의 둔감 증에 대한 근본적인 해
소책,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위기의식을 재충전하여 동창회의
본래목적과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부수사업을 지양하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
고 내실을 기하는 동창회 제반 사업의 점진적인 구조조정, 못 다한 주소록의
끝맺음, 동기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증진하여 동기회 모임에 못지않은 알차
고 재미있는 이른바 동기회를 겸하는 Convention 구상, 동부와 서부지역뿐만이
아니라 미주지역에 흩어있는 이사 및 대의원들의 원활한 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Teleconference의 기술적 보완, 힘들지만 더 많은 동문들께서 그런대로 부
담 없이 적극적으로 동창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등, 앞
으로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은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김일영 신임
회장님과 회장단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때에 끊임없는 격려와 뜨거운 성
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변화로 전환점을 맞이한 동창회의 현황을 자타가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뛰어나고 능력 있는 젊은 동문들마저도 자칫하면 홀로서기에 그
칠까봐 선뜻 동창회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쳐 일하겠다고 자원하
지 않는 현실에서, 바라옵기는 선후배를 막론하고 더 이상 내가 아니라도 누군
가가 나서서 해 주리라는 기대와 무관심을 접고, 모름지기 아직도 뜻있는 동문
들만이라도 배풀고 섬기는 마음으로 모두 다 함께 꾸준히 노력하면서 사랑과
이해가운데 잔잔한 감동으로 다른 동문들의 참여를 격려 할 수 있다면 우리
동창회는 얼마든지 견재할 수 있다고 다짐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저와 함께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꾀은일을 마다않고 마
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해온 Convention 위원장 겸 (다음면에 계속)

제2차 대의원회 초록



일시: 2012년 6월 30일 (토) 오후 7시 NJ 와 오후 4시 LA

장소: 풍림 식당 (NJ), 소향 식당 (LA)

참석자: (NJ 풍림)

노용면(55) 이만택(58) 김병석(59) 채규철(59) 김영철(61) 추재욱(63) 한기현(63) 최준희(64) 이명희(66) 최순채(66) 강유구(71) 문대욱(73) 서인석(73) 심인보(83) 이영인(86)

참석자: (LA, 소향)

김태웅(63) 조동준(64) 김일영(71) 김성환(71) 박진국(71) 이원택(71) 안상훈(94)

Proxy :

김웅식(55) 정구영(57) 한성택(57) 최종진(59) 신영철(59) 전희근(60) 안창현(61) 손영진(62) 송영두(62) 여찬기(62) 김택수(63) 허선행(64) 권정덕(64) 주의돈(64) 김태환(64) 정길화(65) 최영자(66) 민발식(66) 장한교(66) 한영수(67) 최승용(67) 이민우(67) 서윤석(68) 이진일(68) 엄규동(69) 김병오(69) 조영갑(70) 인정길(70) 강창홍(71) 김창구(71) 오동환(71) 곽승용(71) 김유식(71) 최영철(71) 오용호(72) 최인섭(72) 김재석(72) 김종영(72) 이계석(73) 나두섭(73) 전경배(75) 김원정(75) 한승신(76) 박일우(77) 김동훈(77) 권오기(78) 장연웅(78) 백승원(79) 김치갑(79) 전원일(83) 손정현(90) 조형기(92)

1. 제2차 대의원회 개회

성원 점검후(22명 참석, 52명 proxy, 14명 겸직) 오후 7시(Eastern time), 오후 4시(Pacific time) 회장의 개회선언후 지난 대의원회 초록을 수정 없이 동의와 제청으로 통과 시킴.

2. President: 문대욱 회장(사회)

먼저 Meeting에 참석한 동문들에게 인사가 있는 후,

이제껏 미주지역에 걸쳐있는 대의원들의 회의 참석현황이 회장단의 위치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만 열리는 회의에 쉽게 참석 할 수없는 정상을 참작하여, 새로이 동부와 서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대의원회를 Teleconference를 통해 시도 해 보았음. 특히 새로운 회장단이 LA에 자리잡음에 따라 앞으로 더욱더 그 필요성이 절감한지라 신임 김일영 회장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준비하게 되었음.

먼저 이번 제 2차 대의원회 Attendance list를 power point로 살피면서 참석 현황을 검토한 결과, Executive officer나 Committee chairman의 참석률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거리가 먼 지역의 class representative와 local chapter president는 말할 것도 없고 BOD의 참석이 거의 없음을 재인식 하게 되었음. 바라건대 앞으로 동부와 서부는 물론 중부지역까지 포함되는 보완된 multi-영상회의를 통하여 가능한 많은 수의 회의 참석이 가능하리라 기대됨.

3. Committee chairs Reports:

- Finance Committee (최순채 위원장)

총결산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2011-2012년도의 회계 보고는 다음 BOD meeting에 정산이 보고 될 것임.

- Scholarship fund committee(서인석 위원장): 김태웅 및 송관호 장학금 미주 2명, 본교 2명이 각각 지급되고 SNUCAA장학금은 미주 5명, 모교 4학년 10명(모교 Matching fund 5명 포함) 지급되고 있음.

2012년 가을 장학금 공고가 시계탑과 Web site,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신문 및 동서부의 한국일보에 실릴 예정임. 김태웅 장학금 2명, 송관호 장학금 2명, snucaa 장학금 5명, 총 9명을 선발할 예정임.

- Fund Raising Committee (추재욱 위원장): 시계탑 참조

- Scholarship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 위원장): 지난 1999년에서

<전면에서 계속> 동창회 만능 일꾼인 서인석 동문, 그리고 지극히 헌신적인 Convention Chair 권정덕 동문내외, 결코 쉽지 않은 CME Credit을 마련하고 새롭고 참신한 idea로 성공적인 Scientific session을 거뜬하게 매듭지은 강유구 동문, 그리고co-chair로 함께 수고한 한승신 동문, 구정예식이라는 기지로 호텔의 양해 하에 별미의 떡과 한식으로 즐겼던 점심해결사 및 non-CME chair Mrs. 석창호, 뉴욕지부장으로 뉴욕지부를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갈 백승원 부회장, 소문난 내조를 등에 업고 묵묵히 열심히 수고한 심인보 재무, resident 동문들을 위해 수고가 많았던 이영인 동문, 총무 권오기 동문, local convention chair 김재석 동문, 새로운 Book writer's forum 및 역대 회장간담회의 김병석 동문, Fashion show의 Mrs. 곽승용, 그리고 이제껏 한결같이 동창회를 위하여 대다수가 오랫동안 이모저모로 헌신해 오신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또한 새로이 동창회 사무실의 모든 살림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무총장 Mrs. Jamie Kim,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끝으로 부족하나마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려는 저희들의 뜻에 끊임없는 격려와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참여해주신 많은 동문들께 큰 절을 올리면서 분에 넘치는 귀한 추억을 간직하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앞으로도 동창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집행부를 보필하여 한 발 뒷전에서 함께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동문들의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까지 우리 Fund의 추이는 S&P 상승률을 능가하고 있고 매년 6% 증가하는 insurance를 들어 있음.

- Publication committee(김병석 위원장) : 7월 시계탑의 원고 편집은 마무리가 되었음. 지난 호 발행 후 여섯 명의 회원이 작고하심. 이 점을 현실로 받아들여 동창회의 운영에 반영해야 될 것임.

- Advisory & Exchange Committee (이만택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Research and Membership Committee (조세진 위원장): (서면보고)

2012년도 (제16회) 합춘 학술상 및 제9회 장기려 의도상 후보자 추천 및 신청. 시계탑 및 동창회 website 참조.

- By Law Committee (노용면 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 Nominating Committee (정인용 위원장): 불참.

- Green project(이영인 위원장): 젊은 층의 동창의 만남을 여러 도시를 돌며 networking을 구축하고 있음. 지난 몇 개월간 7군데의 도시를 돌아서 아래의 젊은 동창을 만났음. (SF의 정영태 이도은, Johns Hopkins의 박종철, PA의 윤정현, 황필규, LA의 조형기 등) 만남에서 가까워지는 것으로 동창회로의 참여를 기대해 봄.

지난 제29차 학술대회에 박준홍 선생님 fund의 도움으로 참석을 하였던 green project travel fellow award 수여자의 한명인 윤정현 동창의 도움으로 갑자기 여름 연수에 차질이 일어나 곤란을 겪던 서울의대 본과 3명의 여름 연수가 PA의 Albert Einstein Hospital에서 할 수 있게 되었음. 올 해에도 서울 본교에서 16명이 여름 연수를 왔는데, 그 중에 5명이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음.

- Silver Project Committee (한기현 위원장)

5월 25일 ~ 6월 3일에 걸쳐 도합 18명의 동문가족이(class 1958-1971)참석한 흥겨웠던 Baltic 여정을 보고하였음.

- Charity committee(최영자): 서면으로 제출한 안건(코코장애아 동아서비스센터에 \$3,000 기증)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가결 되었음. 주요안건시 위원장 혹은 위원이 참석하여 직접 발표할 것을 강조함.

기타 AGENDA

- 회비 납부

* 가능한면 예전보다는 힘들어 지는 donation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재정운영을 탈피하고 최대한의 회비납부를 통한 안정된 재정보호를 목표로 회비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과, 새 주소록을 위한 동문현황 및 의사자녀들의 network 형성을 위한 정보수집을 요구하는 편지를 납부여부에 따라 구별하여 보낸 결과, 주소록을 위한 기부금과 이번 회기의 동창회비 납부외에도 상당수에 달하는 중복회비납부가 발생하여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다가오는 차기회비로 전환하였음.

* 회비모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Revenue sharing을 local chapter 보다도 동기에 지급하여 동기회장들을 통한 회비납부의 촉진과 더불어 각 동기회의 동창회에 대한 관심 및 긴밀한 유대관계를 증진시키자는 의견에 대한 토론이 있은 후 조금 더 검토한후 차후에 재거론하기로 함.

* 동창회의 많은 회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또한 은퇴하는 동문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만간 동창회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한 동창회 사업의 적절한 방향설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 새 회장단에게 넘기는 재무 인계가 수 개월 후보다는 2개월 내에 되기를 희망하는 건의.

- Member Directory

* 새 주소록에 수록할 동문현황 및 의사자녀들의 network 형성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편지를 보낸 결과 현재 동창회원 1200명 중에 확인이 된 회원수가 절반에 미치지 않는 400명 수준이므로 더 많은 동문들의 협조가 요망됨.

* 추가편지의 필요성이 예측되며 그래도 미확인되는 동문은 예전대로 수록할 것이라는 내용이 첨가될 것임.

* 주소록 발간에 도움 줄 컴퓨터에 경험있는 회원의 물색요망.

* 이미 접수한 Information과 donation 위에 계속 추가를 하여 차기 김일영 회장님 회계연도내에 주소록이 마무리되기를 바람.

문대욱 회장 이임인사:

그동안 일년간 함께 수고해온 회장단과 각 위원장 및 많은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김일영 회장 취임인사:

그동안 수고하신 문대욱회장 및 회장단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새로이 시도한 서부와 동부의 tele-conference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더욱 더 보완하여 좋은 tele conference가 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임원진은 곧 결정이 될 예정이고, BOD member는 동부와 서부 반반 정도로 새 구성. 다음 제30차 학술대회는 3월 14일에 LA에서 있을 예정이며, 이어 local tour를 구상 중. 앞으로 올 학술대회의 많은 참석을 부탁하며, 동창회에의 대한 많은 성원을 촉구 하였다.

문대욱 회장이 지난 일년동안 열심히 도와주신 임원, 위원장, 대의원, 지부 회장 및 모든 회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9시10분에 폐회를 선언함
심인보 (83, 재무) 보고

대 뉴욕지부 2012 Annual Ball 합춘의 밤 공고

2012년 11월 9일(금요일), 뉴저지 Teaneck의 Marriott Hotel에서 대뉴욕지부 Annual Ball "합춘의 밤" 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20명을 Guarantee하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도 부부사진은 물론 각 동기회별로 기념사진 촬영도 할것이며 몇몇 동기회의 특별 찬조 순서들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주 재미있고 의미있는 시간들을 갖게 될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이메일로 만나뵙겠습니다.

백승원(79) 대뉴욕지부 회장

동문동정 및 시부소식

대뉴욕지부 '이규용배 골프대회' 성황리에 마쳐



지난 6월 27일에 있었던 "이규용배 Golf 대회" 는 환상적인 날씨의 축복과 모든 선배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도움과 참석으로 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86명의 Golfer들이 Private Royce Brook 골프장(West Course)의 잔디 위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쳤으며, 저녁 시상식과 만찬에는 멀리 Long Island에서 운전하고 오신 이규용 선배님을 포함 92명이 함께 모여 Club House에서 풍성한 음식과 상품들로 대 성황리에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일 많이 오신 동기상에는 모두 18분이 참석하신 64년 동기회에게로 돌아갔으며, 특별 동기상에는 부부 100%의 참석율을 보여주신 58년도 동기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Hole Sponsor을 해주신 선후배님들, 그리고 열심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접수와 상품 display, 그리고 진행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세심하게 도와주신 Mrs. 최준희(64), 또 맛있는 점심 김밥을 멀리에서 pick up 해 오시고, 작은 곳을 일들을 도맡아 해 주신 Mrs. 오용호(72)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녀 수상자 명단은 - Champion: 노여수(67) Mrs. 백승원(79), 1st: 민발식(66), Mrs. 이상오(78), 2nd: 방준재(70), Mrs. 윤영섭(63), 3rd: 한영수(67), Mrs. 임준형(73), Longest: 오유섭(64), Mrs. 정인용(71), Closest: 이상무(62), Mrs. 임준형(73), Straightest: 이상오(78), Ms. 박찬래(Bank Asiana).

- 보고: 백승원(79) 대뉴욕지부 회장

그린 프로젝트- 17명 후배동문 하기 의학연수

그린 프로젝트의 후원으로 17명의 모교 후배 동문들이 의학연수를 왔다. 뉴욕 콜롬비아 의대에 김정수, 박연정, 성민정, 김보희, 윤나래, 정성애, 이기환, Albert Einstein Medical center 신정훈, 장시원, 김보람,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이한명, 박정태, University of minnesota hospital 유신혜, MD Anderson 신수영, Cardiovascular research of UCSF 이경실, UCLA 정우현, 정영미 등이다. 사진은 뉴욕에 온 후배동문들과 이영인(그린프로젝트 위원장) 동문과 서인석 동문.



뉴욕을 방문하신 이길여 서울의대 명예동창회장님과 함께

Silver Committee - 동북 유럽 여행

Silver Committee(한기현, Chair) 행사 중 하나로 이번에는 동북 유럽 국가들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둘러왔다

폴랜드의 Gdansk, Malbork와 Olsztyn을 거쳐서 비교적 미지의 국가였던 Lithuania의 Vilnius, Trakai, Siauliai와 Rundale 등의 도시를 구경했는데 그곳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투어가이드인 Mr. 최의 해박한 설명에서 배우고 느낀 것이 많았다. 이렇게 2일을 보낸 후 우리 일행은 Latvia라는 나라에 아무 검색 없이 입국하여 Baltic Sea에 인접해 있는 Baltic Beach Hotel에 묵게 되어 그곳 해변에서 수영선 너머로 해지는 모습의 장경을 즐기게 되었고 소위 엄청나게 큰 Green Flash 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이 호텔 주위에 있는 고급주택들은 모두 옛날 공산 정권 때의 고급관리들이 살았다는데 대단한 저택들이었다. 다음 날엔 Latvia에서 제일 큰 도시인 Riga에서 하루를 관광으로 보낸 후 그 다음날엔 Parnu라는 Estonia의 휴양지를 거쳐서 Tallinn 근교에 있는 Kadriorg Park 과 궁전을 보게 되었다. 이 궁전은 러시아제국 시절 Peter 대제가 자기 부인 Catherine을 위해 만든 휴양지의 저택으로 Baroque style의 궁전 이었다.

마지막 날인 6월 2일에 Tallinn 시내관광을 하면서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며 고향에 돌아온 기분도 났었다. 동유럽 관광의 초점은 십자군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독일과 소련 침략에 발판지로 폐허와 재건이 반복된 이 나라들의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 살아나 발전하는 양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도 비교해 보게 되었다. 이번 여행은 어느 때보다 편안한 버스 여행이었으며 호텔과 음식이 전반적으로 수준급이었는데 이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신 정수자 사장님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이번 여행에 참가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김해암(58), 한기현(63), 반택용(63), 허선행(64), 민발식(66), 한일성(66), 이승공(69), 강태수(71) 동문 부부들과 김현(66) 동문, 그리고 정수자(아세아 여행사 사장) - 허선행(64) 보고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보고서

당신의 사랑이 서울대학교의 빛나는 "내일" 을 만듭니다. 지원하여 주시는 의대 동문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에 기부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단위 US Dollars)

기금(Fund) 설정: 김기태 노정옥 - 의대 장학기금 500,000 약정 (300,000 출연) / 김의신 - 의대 핵의학 학술기금 200,000 약정 (220,000 출연) / 박종수 - 수의대 장학기금 100,000 약정 (50,000 출연) / 김영석 - 아세아 연구소 지원기금 100,000 약정 (50,000 출연) / 이병준 - 법인화 지원기금 100,000 출연 / 익명 - 수의대 부속병원 지원기금 100,000 출연 / 익명 - 수의대 생명공학 지원기금 100,000 출연 / 김기봉 신경은 - 네 교수장학금 90,000 출연 / 익명 - (생명보험) 의대 장학기금 200,000 유증

2010년: \$354,470/2011년: \$514,180/2012년: \$522,900(4월 현재) - 총합계: \$1,391,550

2012년도 미주재단 지급계획

김기태-노정옥 장학금: 의대학생 1명 5,000 / 김의신 핵의학과 학술기금* / 김은섭-임현재 장학금: 의대 하기 임상연수 1명 2,000 / 박홍락 장학금: 수의대 학생 1명 5,000 / 강창홍 통증 연구금: 의대 마취통증과 15,000* / Goldman Sachs 장학금: 경영학과 5명 25,000 경제학부 5명 25,000 사회복지학과 5명 25,000 컴퓨터 공학부 5명 25,000 / 강영석: 아세아연구소기금 50,000* / 이회백 장학금: 의대 학생 2명 10,000 (2011년 송금) / 익명: 수의대 동물병원 지원금 100,000* / 익명: 수의대 생명과학 연구기금 100,000 *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시작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임원명단

이만택(이사장) / 송순영(총무이사) / 김형주(재무이사) / 남익현(이사) / 이석원(이사) / 한종철(이사) / 안지현(발전기금 지원실장) / 이경림(재무) / 김인중(간사) / 허슬기(발전기금 간사) / 조한준(발전기금 출연 예우 간사)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은 IRS에 등록된 면세 승인 기관(501-C-3)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만택 이사장 제공)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 212-768-9144(사무실), 215-968-3897(개인) mmlecmd@verizon.net

2012년도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에서는 2012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동포 학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대 상: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성성적이 우수하거나 각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동포 자녀로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모집인원: 9명 이하 (장학금 각 \$2,000 내지 \$5,000)

구비서류: 신청서 (www.snucmaa.us Website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음)

성적증명서(transcript), 자필소개서(essay), 추천서 2통

구비서류에 결격이 없고, 신청마감일 이전에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된

응모자에 한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응모기간: 2012년 9월 14일 까지

발표 및 수여: 개별 우편 통보 (미동부 시상식 2012년 11월 9일, 미서부 시상식: 추후발표 예정임)

접수 및 문의: SNUCAA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 snucmaa.scholarship@yahoo.com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장학위원장 서인석

2012-2013 Executive Officers

| | | | |
|--------------------|---------|-----------------|---------------------|
| President | 김일영(71) | (626) 355-0526 | ilykim@gmail.com |
| 2nd Vice president | 박진국(71) | (947) 715-6854y | sparkkp@hotmail.com |
| 1st Secretary | 이원택(71) | (562) 697-6214 | |
| 2nd Secretary | 안상훈(94) | (213) 388-0908 | doctahn@gmail.com |
| Treasurer | 김성환(71) | (323) 965-1712 | sunghwkim@yahoo.com |

2012-2013 Committee Chairmen

| | | | |
|------------------------|---------|----------------|-----------------------|
| Finance | 한동수(66) | (949) 675-3086 | dshanmd1999@yahoo.com |
| Scholarship | 서인석(73) | (201) 871-9191 | ins9002@gmail.com |
| Fund Raising | 이희영(71) | (310) 858-0155 | hlee112099@yahoo.com |
| Schol. Fund Management | 이명희(66) | (914) 961-2821 | DocM4@aol.com |
| Research & Fellowship | 조세진(71) | (410) 750-9188 | cho3gene@gmail.com |
| Green Project | 이영인(86) | (201) 569-1895 | fl127@columbia.edu |
| Publication | 김병석(59) | (718) 238-7077 | dbkimmd@gmail.com |
| By Laws | 노용면(55) | (914) 738-4511 | ymrhmd@optonline.net |
| Advisory & Exchange | 이만택(58) | (215) 968-3897 | mmtlee@hotmail.com |
| Nominating | 문대욱(73) | (302) 427-8880 | dmoon625@hotmail.com |
| Silver Project | 손영진(62) | (714) 508-7811 | yzsohn@gmail.com |
| Office Management | 곽승용(71) | (516) 626-3152 | syngkwak@yahoo.com |
| Charity | 최영자(66) | (203) 629-5373 | ychoikim@gmail.com |
| 2013 Convention Chair | 김홍서(69) | (818) 708-7868 | hong_kim@yahoo.com |
| Scientific Chair | 조세진(71) | (410) 750-9188 | cho3gene@gmail.com |
| Non-CME | 최광휘(76) | (818) 952-7120 | akchoi52@gmail.com |

2012-2013 Local Chapter

| | | | |
|------------------------|---------|----------------|-------------------------|
| New England(Boston) | 최인섭(72) | (781) 899-3683 | in.sup.choi@lahey.org |
| Greater NY | 백승원(79) | (908) 626-0935 | andrewbaik5@gmail.com |
| Central NY(Syracuse) | 민발식(66) | (315) 793-3238 | balshikm@msn.com |
| Western NY(Buffalo) | 장한교(66) | (716) 688-2927 | hankyo41@gmail.com |
| Nothern NY(Albany) | 한성택(57) | (845) 331-7712 | shan242700@yahoo.com |
| Greater Philadelphia | 송영두(62) | (215) 576-7209 | yungdoosong@comcast.net |
| Maryland | 신영철(59) | (410) 272-7049 | yjyys@comcast.net |
| Nothern OH(Cleveland) | 이계석(73) | (440) 449-7239 | keslee@gmail.com |
| Central OH(Columbus) | 최영철(71) | (614) 406-4156 | ycchoy@hotmail.com |
| Western OH(Cin.Dayton) | 이건일(68) | (513) 891-1699 | kleetraveler@aol.com |
| Minnesota | 김태환(64) | (952) 835-7353 | Taekim19@gmail.com |
| Texas | 김풍영(72) | (713) 461-3664 | poongykim@aol.com |
| Southern CA | 전경배(75) | (562) 697-6070 | kbchon@hotmail.com |
| Michigan | 이민우(67) | (248) 338-3135 | mwlee329@hotmail.com |

2012-2013 Class Representative

| | | | |
|---------------|-----|----------------|---------------------------|
| Class of 1955 | 김웅식 | (614) 889-8873 | ungskim@yahoo.com |
| Class of 1957 | 정구영 | (407) 876-9494 | dwardkchungmd@yahoo.com |
| Class of 1958 | 이만택 | (215) 968-3897 | mmtlee@hotmail.com |
| Class of 1959 | 최종진 | (631) 979-6579 | choi007@optonline.net |
| Class of 1960 | 전희근 | (215) 635-6030 | hikonchon@gmail.com |
| Class of 1961 | 김영철 | (201) 871-4745 | ykim4745@yahoo.com |
| Class of 1962 | 여천기 | (714) 544-0559 | ckryumd@yahoo.com |
| Class of 1963 | 한기현 | (973) 256-4041 | kihan00@yahoo.com |
| Class of 1964 | 주의돈 | (908) 464-7731 | Euidonjoo@gmail.com |
| Class of 1965 | 정길화 | (614) 604-7740 | kchoung314@gmail.com |
| Class of 1966 | 최순재 | (908) 561-9240 | soonchoi@aol.com |
| Class of 1967 | 최무용 | (717) 696-4420 | edwardchoi125@yahoo.com |
| Class of 1968 | 서운석 | (703) 753-1798 | younseokseo2004@yahoo.com |
| Class of 1969 | 엄규동 | (973) 777-5299 | kduhm@yahoo.com |
| Class of 1970 | 인정길 | (740) 548-2088 | yin500@hotmail.com |
| Class of 1971 | 김창구 | (269) 687-9257 | ckurtiskim@hotmail.com |
| Class of 1972 | 석창호 | (516) 466-0399 | changhsuk@gmail.com |
| Class of 1973 | 이계석 | (440) 449-7239 | keslee@gmail.com |
| Class of 1975 | 김원정 | (734) 856-1455 | wjkim@upmc.edu |
| Class of 1979 | 김치갑 | (201) 750-0897 | cheegap@gmail.com |
| Class of 1983 | 전원일 | (858) 587-7974 | wichusa@hotmail.com |
| Class of 1986 | 이영인 | (201) 569-1895 | nybonetumor@gmail.com |
| Class of 1990 | 손정현 | (502) 329-2262 | eyedrsohn@yahoo.com |

삼가 명복을 빕니다**김순욱(52)동문 별세**

김순욱 동문이 5월 13일 새벽에 숙환으로 La Mirada, LA에서 서거하였습니다. 고인은 서울의대를 52년에 졸업하시고 고려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있다가 도미하였고, 은퇴후 서예(붓글씨)에 각별한 재능을 보여 미주한인서예협회 회장을 맡으셨고 많은 제자들과 세상에 빛을 남기셨습니다. 고 김자훈 교수님의 조카이기도 한 김순욱 동문의 유가족으로는 방옥환 여사를 비롯하여 2남녀가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웅식, 55)

박경민(59)동문 별세

보스톤에서 거주하시던 박경민(59)동문께서 지난 2012년 6월 8일 오전 1시경 운명하셨습니다. 뉴잉글랜드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창설 초대 회장이신 고인께서 본 동창회와 지역사회에 쌓으신 드높은 공적을 기리고자 "본 동창회 장(葬)"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장정렬, 장남: 재현, 자부: 황상은, 차남: 재범, 자부: 윤성혜, 삼남: 재진, 자부: Kristine과 여섯명의 손자녀가 있습니다.

서영석(61)동문 별세

남가주에 거주하시던 서영석(61)동문께서 별세했습니다. 추모예배는 Quinn-Fogarty Funeral Home에서 지난 6월 19일 많은 조객들이 모인 가운데 가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청하(63)동문 별세

김청하(63)동문께서 지난 5월 11일 별세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재욱(64)동문 별세

시카고에 거주하시던 노재욱 동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연철(72)동문 별세

뉴욕에서 산부인과 개업의로 활동하던 김연철(72)동문이 지난 6월 14일 저녁 7시경에 뉴욕 플러싱 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뉴욕에서는 6월 19일 추모 예배만 드리고 장례는 한국 선산으로 모시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석창호, 72)

A special tribute to my dear friend, Dr. Chung Ha Kim

I am Noah Chan Hyuk Choi, a classmate of Dr. Chung Ha Kim

I would like to share some fun memories from the path of our lives. He was very talented in music with gifted voice. He was also famous for his laughter that was loudest in the class. After graduation in 1963, we saw each other briefly in 1965 in Cleveland, Ohio where both of us were taking postgraduate training. He remained in Cleveland for continuation of his training in ENT specialty while I left Cleveland for training in Radiation Oncology. Six years later, I saw Chung Ha doing fellowship in Radiation Oncology. Following the fellowship, Chung Ha established his practice in Fitchburg and provided outstanding service to the patients and the community. He earned high A for his kind care from his patients.

When we were young, we played card games together. We also went to Tangle Wood for summer music festivity.

His passion in music helped him to continue his singing as a member of the prestigious Worcester Chorus. We were invited to The Worcester Chorus performance featuring the Mozart Requiem at The Mechanics Hall in March 2008. The performance was beautiful and very moving as of angels were singing. I could see Dr. Kim singing on the state with glowing face. The Requiem starts with: Hear my prayer; to you all flesh will come. Grant them eternal rest, Lord. There was some sadness in the music reflecting that fact that Mozart's premature death left the music incomplete and unfinished. Life is incomplete.

Chang Ha had special magic to marry one of class mate's sister, Emerline's mother. His children are very gifted and model students.

Chang Ha was a very proud husband and father. His dream and legacy will continue to cherish through his children, grandchildren and society. Our love and sincere sympathy to Mrs. Kim and children.

May 1, 11, 2012 - Noah Chan Choi

ANNOUNCEMENT

제16회(2012년도) 합춘 학술상 및 제9회 장기려 의도상 후보자 추천 및 신청을 공고합니다.

제16회(2012년도) 합춘학술상**1. 시상규정 주요내용:**

- 수상인원 및 연구비

- (1) 합춘동아의학상 1명 - 연구업적부문 3,000만원
- (2) 합춘의학상 2명 이내 - 연구계획 및 업적부문 총 3,000만원 이내

- 선정: 서울의대동창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2. 제출서류: (필요한 양식은 동창회 사무실에 구비)

- (1) 추천서 1부
- (2) 합춘학술상 후보자의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 신청서 1부

추천: 각 지부회장, 동기회장 또는 자천

지원자격: 1. Due paying member of the SNUCAA of NA

2. Willingness to be presented in person at Award Ceremony in Seoul

3. If Applicant is previous awarded, his/her post-award research accomplishment will be judged competitively.

접수마감: 2012년 9월 10일(월)

시상: TBA (to be announced)

제9회 장기려 의도상**1. 시상규정 주요내용:**

- 수상인원: 개인 1명 또는 단체(1)

- 연구비: 금메달 및 소정의 연구비

(단, 단체의 경우 금메달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비로 지급)

2. 제출서류 (시상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

(1) 추천서 (2) 이력서 (3) 사진 3매

(4) 업적관련 자료

(5) 업적 요약서

More details could be obtained from the committee upon the request.

Please send your application with supported documents to Sechin Cho, M.D., Chair,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2140 Turnberry Way, Woodstock, MD 21163 or cho3gene@gmail.com

신경외과의, 서예가 荷農 김순욱 兄을 보내며

미주한인서예협회장으로 공헌이 큰 荷農 김순욱 兄이 지난 5월 13일 84세로 캘리포니아에서 별세하였다.

형은 1952년 나와 같이 의대를 졸업했다. 전쟁 속에 마지막 2년을 교실에서 같이 지낸 기억은 희미하지만 사십년이 지난 후 뉴욕에서 다시 우리가 만났을 때는 형은 신경외과의사에서 유명한 서예가로 변신한 때였다. 각광을 피하면서 지내는 형을 나는 무척 존경하여 왔다.

2000년 뉴저지 럿거스 대학에서 열린 서예 전람회는 성황이었다. 그 후 통아일랜드 스토니 브룩 대학에서 부부의 전람회 역시 성황을 이루었다.

다음은 본인이 부인 김옥환 여사에게 보낸 조문 카드 내용이다.

김순욱 형 내외분

그러고 보니 형 내외와 뉴저지의 중국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한 것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상화가 '이여란' 전람회에 그리니치 동네 좁은 길을 걸어가다 커피전문점에서 형을 만난 추억이 새삼스럽군요.

통 아일랜드 스토니 브룩 대학에서 열린 형 내외분 전람회에 가서 부인이 그린 동양화를 샀는데 나보고 형은 "眼目이 있구만" 하더군요.

이 나이가 되어 이별을 수십 번 겪고 나니, 모든 일이 안개와 같이 희미해지기만 하고 마음에 남는 것은 외로움과 슬픔일 뿐이지요. 생각 속에, 막연히 다시 만나보고 싶은 심정은 간절할 뿐. 추억에 남는 과거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兄 荷農을 보내면서 - 김정준(52)

박경민 동문을 먼저 보내며

지난 6월 8일 사랑하는 가족이 모인 가운데 편히 유명을 달리한 고인은 필자와 국민학교로부터 의과대학까지 주욱 같은 학교를 다녔으며 보스턴에서도 사십여 년간 가까이 살며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는 1934년 9월 26일 외아들로 태어나 27세에 장정렬 여사와 결혼하여 세 아들을 훌륭히 키웠고 여섯 명의 손자 손녀를 보아 가문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작년 9월 23일 금혼식도 지나고 매년 즐기던 서울 여행준비 중 갑자기 발병하여 두 차례 수술 후 회복 지연으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물론 의사로 성공했고 그의 사회에도 기여가 컸습니다. 예화로 Heart Attack Patient를 비행기 안에서 구조, 그 이래로 PanAm Airplane에 First Aid Kit 갖추게 만든 일, 모두 포기한 어린 아기를 끝까지 노력해 살려 30여 년간 자란 그가 매년 감사 연하장 보내온다는 이야기 등. 또 학창 시절부터 서울대 신문 기자로 활약 하더니 65세 정년퇴직 후 알아 늙기 직전까지 늘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송재 서재필 박사의 전기를 역사에 남을 가치가 넘치는 논문으로 남겼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에서 "동창회장(葬)"이란 이름 붙은 것은 다 고인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는 것이며, 특히 100주년 이민사 300페이지는 그의 지휘 아래 대 성공을 보았습니다.

필자는 동안의 항상 웃음을 지닌 고인이 늘 위인들과 친구들의 업적을 치하만 했지 남을 비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전화 하면, "그래, 나다." 명랑한 그의 대답이 들릴 것만 같습니다.

"I miss you, Kyoung Min."

We will all miss you, Dr. Park.

- 59년 동기동창들을 대표하여 정태진

멋있게 살다간 자연인, 재욱 형

어제는 그의 회복을 위해 오늘은 그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기도 한다. 우리가 이제 그런 나이에 들어선 것이다.

그의 삶의 족적을 보면 정말 특출나고 다재다능한 인생이었다. 다재다능하다면 흔히 박복함을 연상하게 되지만 그는 직장이나 부인과 아이들 어느 것 하나 축복받지 않은 것이 없는 생을 살았다. 그의 다재다능이 조금도 오만에 이르는 일 없이 그를 만나면 언제나 포근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었다. 그가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삶의 지혜와 열정까지도 나의 내면에 고스란히 전해져오는 느낌까지 갖춘 했다. 내가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내겐 큰 행운이었다.

컴퓨터를 켜니 뉴욕에 있는 이웅만 동기한테서 재욱 형의 소천을 알리는 메일이 와있었다. 이렇게 가는구나.

수년전에 자신이 즐겨하던 야생화 가든을 더 열심히 하기위해서 은퇴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가 이제 막 60줄에 들어서고 있을 나이였으니까 대단한 결심이었다. 부인이 아직도 직장에 나가고 있었고 딸 Pam과 아들 Alex는 다 의사의 길에 들어선 후였으니까 가능하기도 했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으리라. 부인의 내조와 이해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그 때가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끼어있는 주말이여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 그의 집에 들려 그가 손수 가꾼 가든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돌아올 때 그가 손수 골라준 몇 가지의 페러니얼들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었다.

그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그치지 않고 피어난다고 설명을 했다. 페러니얼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하는지도 설명해주었다.

그는 시카고 트리뷴에서 실시하는 가드닝 콘테스트에 출전해서 특상을 받고, 이어서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발탁되어 트리뷴에 사진과 함께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생태 보존에 대한 글을 신문에 기고하여 후배 양성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한다. 그의 가든은 곧바로 트리뷴에 소개되었고 버스를 타고 그룹으로 구경을 오기도 한다고 했다. 가드닝 이외에 사진과 버드 워칭에 대해서 그가 보여준 전문적인 식견에 나는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따라 그의 집 부근에 있는 식물원에 가서 red winged blackbird를 처음 보았다.

수일 전에 나는 골프장에서 날갯죽지는 빨강고 몸은 윤나는 까만색의 작은 새 한 마리를 보았다. 아 이곳 플로리다에도 저 새가 있구나. 나는 곧바로 재욱 형이 떠올랐으며 이내 박식한 그와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투병하고 있을 그를 생각하니 호사스러운 생각을 접어야 했다.

평소에 조용한 그는 영문 시작에도 특별한 관심과 조예가 있었다. 시계탑에

도 몇 번인가 그는 자작 영시를 올려주었다.

그가 촬영한 야생화와 새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몇 장을 내게 선물로 주었다. 차분히 자신의 소박한 꿈을 내게 들려주기도 했다. 야생화와 새들 사진들을 곁들여서 생태보존에 대한 책자를 영문으로 내고 싶다고. 그리고 시카고에 코리아 가든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에게 그 꿈을 이루었는지 물어 볼 기회가 없었다.

그는 의예과에 들어갈 때 몇 안 되는 독일어를 선택과목으로 택한 친구였다. 친구들 중에서도 인문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그리고 깊이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 타협을 하기보다는 힘들더라도 자기 길을 가는 친구였다. 과묵해서 쉽게 입을 열지 않던 친구. 그야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짧고 굵게 인생을 살다간 친구였다.

수년 전에 나는 런던에 가는 길에 시카고에 들려 그를 만나 볼 기회가 있었다. 마침 내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그도 또한 스톤헨지(stonehenge)를 촬영하기 위해 혼자서 여행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런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 마침 우리가 영국 관광을 하고 있는 동안에 테러문제로 비상이 걸렸었기 때문에 잠시 공항을 닫아야 했었다. 나는 그 친구가 당연히 여행을 취소했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계획대로 비행장이 다시 문을 열게 되자 여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는 신념대로 인생을 살다간 친구다.

내가 이곳에 내려와 살고 있는 곳을 3년 전에 방문해 주었고 금년 설날에 나는 그의 건강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로 전화를 했었다. 예상대로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받아들이고 텍사스에 있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겠노라고 했다. 그 때 전화와 이메일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던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나는 차일피일 전화를 미루고 있었다.

이제 친구는 떠났다. 그의 빈자리가 크게 남아있다. 그의 명복을 빈다.

재욱 형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신념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 이종오(64)

고 노재욱 형을 추모함

병환소식을 듣고 놀랐다. 한국 잘 다녀와서 보고 싶은 얼굴들 보고 무사히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누이동생으로부터 어제 들었는데 아침에 소천 하셨다니 허망 허탈하지만 평소 좋은 신앙생활로 고통 없이 주님 곁으로 가셨음을 믿고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형은 우리 서울의대는 나의 2년 후배이지만 저의 처 이정혜와 신은림, 정영숙, 민병현 고려의대(64) 4인방에 얽히고, 시카고 동창회, 시계탑 편집, 아름다운 영문 시와 울리는 예술 걸작 사진들 정말 즐겼습니다.

십여 년전에 백두산에 갔을 때 아침 9시에 단체버스로 천지를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명산의 일출을 기어이 사진에 담아야 한다고 새벽 4시에 지프차를 대절해서 올라가 한 보따리 사진기를 작동하며 기다리다가 날씨까지 기가 막히게 구름 한 점 없어 촬영에 성공한 일화는 기억에 생생합니다.

몇 년 전 형의 고명딸 소아심장내과 의사와 소아심장외과 의사인 사위의 기다리던 결혼식에 초대되어 저희 부부는 한상호 동기집에서 며칠 진을 빼고 당신의 걸작 시카고 트리뷴에서 대상 받은 집 정원에서 당신이 개발 발명(?)했다는 돼지갈비 바비큐와 지하실 와인셀러와 대형 영화비디오 감상실에서 나의 상상을 넘는 앞선 컴퓨터 기술로서 동창회 일도 많이 도와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친구를 좋아해서 한국에서는 시카고에 가면 노재욱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저의 처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카고 식물원의 일본정원을 구경시켜주고 기어이 우리 고유의 한국정원도 만드는 꿈을 이루겠다고 백방으로 노력하여 상당한 결실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너무나 많은 재능과 봉사정신으로 가득한 삶을 하느님이 천국에서 일찍 필요하셨는지 저희들은 애석하기만 합니다.

부디 남은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으로 주님 어루만져주시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 정정수(62)

고 김연철 형 영전에 부치어

고 김연철 형을 다시 한 번 불러 봅니다.

김연철 형! 나는 아직 그대를 보내는 작별인사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1966년, 라일락 향기 짙은 문리대 교정에서 의예과 신입생으로 만난 우리들, 그대는 그 때 환칠한 키에 검은 짙은 안경을 끼고 꾸밈없이 환하게 웃던 호남형 청년, 대전 출신 수재로 알려졌지요. 의예과 농구대표선수로 상대가 예상 못하는 두뇌플레이를 펼치어 갈채를 받는가 하면 "쥐구멍에도 벌들 날 있다"는 노래를 가수 뽀찌게 불러 동기생들에게 앙골반던 일을 그대는 기억하겠지요.

그 많은 시험 치느라 같이 밤새워 공부하고 재시험 면하게 되어 서로 쳐다보며 웃던 일이며, 설렁탕 집 각두기 연주에 한여름처럼 유난히 땀 흘리던 그대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대졸업 후 미국이민 길에 올라 형은 산부인과를 전공하고 뉴욕 Flushing에서 개원, 나는 같은 지역의 개업한 동료 의사로, 동기동창 친구로, 골프친구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 온 40여년의 세월입니다.

형은 병원 수술실에서는 가장 유능한 외과의로, 환자들에게는 자상한 의사로, 가정에서는 두 아들과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으로, 율지 않은 일은 타협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본인을 아프게 하더라도 성내어 싸우지 않는 운순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 번같이 여행할 때마다 환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비행기 표를 바꾸어 매번 2, 3일씩 앞당겨 돌아오곤 했던 고 김연철 박사는 의사들의 귀감이었습니다.

3, 4년 전부터 골프거리가 줄어들었다고 한탄할 때 나이 탓이었지 했던 것이 이 병마의 시초였는지는 몰랐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환자에 대한 정성은 계속되어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까지도 진료에 임한 김연철 박사였습니다.

이제 지난 4주 동안 병원에서의 고통은 모두 사라지고 편히 잠들은 그대 김연철 형, 잘 가시오, 아니 연철 군, 아니 연철아, 잘 가라.

라일락 향기 지고난 후에는 마로니에 나무 밑에서 다시 만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2012년 6월 19일 - 석창호(72)



정신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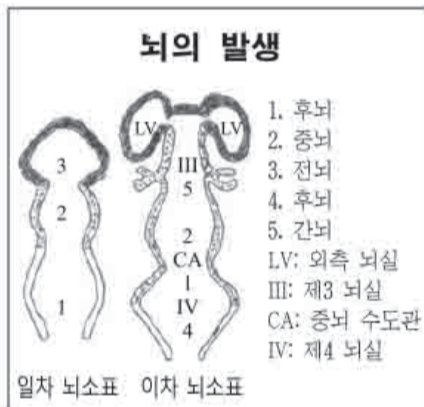
이 원 택(71, 남가주)

초장: 정신의 발달 - 색즉시공 공즉시색

태생학적으로 보면 나중에 등뼈가 될 중앙선 끝 부위에 있는 공간을 신경관이 둘러싸면서 신경관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자라나서 뇌실을 형성하고 그 주위를 둘러싸는 조직들이 후뇌, 중뇌, 간뇌, 전뇌를 형성하고 전뇌는 다시 양쪽으로 팽창해서 전뇌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뇌 속에 있는 허공을 전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외측(첫째, 둘째) 뇌실, 중뇌에 둘러 싸인 곳을 셋째 뇌실 그리고 후뇌가 생겨난 곳에 있는 것을 넷째 뇌실이라고 하는데, 진화학적으로 보면 그 순서가 바뀌어야 마땅할 것이다.

뇌의 설계에서 이 빈공간의 존재야말로 기본적인 것으로 이는 뇌가 찌그러지거나 꼬그라드는 것을 방지 할 뿐 아니라, 그 속은 아주 빈 것이 아니라 뇌 척수액으로 찬 호수와 강으로 뇌의 신진대사에 필요불가결한 기관인데 학자들은 껍데기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그 속 알맹이는 빈 강통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다. <도표참조>



진화학적으로 볼 때, 어류는 처음 생겨나는 후뇌가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로 숨쉬고(수뇌) 운동하는 기능(소뇌)이 발달 되어있고, 파충류의 뇌는 뇌간(brain stem)에서 성장이 멈춰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탐지하고 도망치는 도피반응이 발달되었다.

중뇌(mesencephalon)는 시개(視蓋, tectum)와 대뇌각(cerebral peduncles)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조류에서는 시야가 밝을 뿐더러 평형감각을 잡는 재주가 비상하고 포유류에 오면 소위 rhinencephalon(후각뇌: smell brain)이 발달한 하등동물은 10리 밖에서도 암내를 맡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중등동물쯤 되면 오목철정과 회로애락을 관장하는 간뇌(diencephalon)가 발달되고 전면에 서술한 변연계가 바로 이 간뇌와 사람과 같은 영장류의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뇌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

주로 뇌줄기를 생명의 뇌, 변연계를 감성의 뇌, 대뇌피질을 이성의 뇌라고 하는데 뇌의 matrix(모형)는 감각 → 의식 → 본능 → 기억 → 정신 → 의지 → 영혼으로 발달되어 왔다고 본다.

정신의학에서 신주 모시듯이 받들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간단한 아미노산에서 2-3 단계 탈바꿈한 것들이며, 진화학적으로 보면 저분자들로 구성된 신경 peptide, 즉 enkephalin이나 endorphin 등은 기초적인 감각인 통증과 쾌감에 관여하고 기억력과 근육운동에 필요한 acetylcholine은 많은 육류 중에 포함된

choline에서 한 단계 건너 만들어진 물질이다. 또한 과민성 반응, 위액분비, REM sleep 등에 관계되는 histamine, 환각 및 우울증에 관계되는 serotonin, 각성과 수면에 관계하는 melatonin, 혈압을 조정하는 epinephrine, 각성과 기분을 조절하는 norepinephrine, 망상, 환각, 쾌감, 추체의 증상, prolactin 분비 등에 관계하는 dopamine은 필수 아미노산에서 생성된 물질(catecholamine)로서 주로 중뇌나 변연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 같은 고등동물의 대뇌 피질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glutamate와 GABA라는 고급 신경 전달물질은 신경세포를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것이 주 임무로서(한마디로 glutamate는 '끼'고 GABA는 "인내심"임) 영장류에서는 변연계에서 올라온 억압적정을 억제시키는 데 GABA의 역할이 지대하바 사람이 수도를 많이 할수록 GABA가 많이 분비되나니 이원택 박사의 뇌를 특수 촬영해 보았더니 뇌의 90% 이상이 GABA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다(보통은 75% 정도). 모르긴 몰라도 고승들에서 나오는 사리는 모두 GABA 덩어리 일 것이다.

지난번에 뇌의 대형(macro) matrix를 보고 그 사람이 파충류에 더 가까운 조류에 더 가까운가 짐승에 더 가까운가를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뇌의 미세(micro) matrix를 보면 그 사람이 감각적인가 본능적인가 아니면 이성적인가 또는 금욕적인가를 알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인 근거로 볼 때, 정신은 뇌의 활동이고 뇌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는 유전자에 의해 찍혀 나오고 유전자는 아미노산에 의해서 형성되며 아미노산은 무기물의 배합이며 이 무기물질들은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견고한 실체가 아니라 텅 빈 공간을 광속도로 돌아다니는 소립자들의 에너지와 그 파장이라는 것이다. 즉 기억, 감정, 지식, 사랑, 영혼이라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에너지와 파장이 인간에 집중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산유곡이나 "세도나" 같은 곳에 기를 받으러 가는 일도 아주 쓸데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의 어른신네들이 쓰던 비민주적인 보양술중에 "윗방 아기"라는 것이 있다. 이는 몸에 좋은 기를 가장 많이 가진 14-17세의 처녀와 동침을 하면서 콧김입김을 빨아들이고 배꼽이나 허벅지를 마찰하면 여섯 달 만에 주름살이 펴지고 하얗던 머리뿌리가 검어진다 고 하는 바 이때 과정을 하면 오히려 기를 빼앗기기 때문에 파이라고 한다. 그런데 동침을 끼고 자면서 과격하지 않을 사람이 스님들 빼고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모든 '기'라는 것도 충만하면 반드시 방출을 해야 하나니 한번 찍 싸고 나면 말짱 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196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나노" 물리학의 대부 Richard Feynman 교수는 1959년 연설: "바닥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에서 원자들도 모두 텅 빈 공간이라고 했다. 즉 우리 인간 몸의 99.999%는 텅 빈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아마도 불교의 가르침 "색즉시공"(모든 여색은 허무하다)에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모양이다. 이

말을 우리 정신과에 적용해보면 모든 정신병의 바닥에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여분이 남아 있다" 일 것이다. 그러나 치료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허무주의의 목청도 만만치 않다.

중장: 정신의 본질-나눔의 세계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또는 생각하는 갈대라고도 한다. 인간만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인간만이 종교가 있고 인간만이 육신과 뇌가 죽고 나서도 생명이 계속된다고 믿는다.

고대에는 인간의 정신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이집트의 Pharaoh를 미라로 만들 때도 뇌와 다른 내장은 다 버렸지만 심장은 남겨 두었고 Aristotle이나 Galen도 정신은 심장에서 나오며 뇌는 오로지 심장의 정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신이 황격막에 저장되었다고 믿기도 했는데 그 후, Leonardo da Vinci가 정신은 뇌의 실체보다는 그 속에 텅 빈 뇌실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Descartes는 영혼은 뇌의 중앙에 위치한 단독조직, 송과선에 깃들어 있다고 했다. 이때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정신이란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빈 것"이고 영혼은 인생살이의 유일무이한 "중심점"이 된다는 것이다.

정신의 기원을 알려면 아마도 생명의 기원부터 따져보아야 할 모양인데 과연 물질과 생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생물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복제를 해서 자손을 남겨야 하고, 둘째는 외부로 물질을 공급받아 자신의 몸을 만들어야 하며, 셋째는 외계와 구별되는 세포가 필요하다. 생물이 자기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DNA가 필요한데 DNA는 생물이 아니라 물질에 불과하다. 그런데 세포는 이전에 존재했던 세포로부터만 생겨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생명의 최소 단위인 virus를 "신의 저주"라고도 하는데 이는 물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는 반드시 창조주의 입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즉 DNA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만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포를 갈아 치울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아마도 영원토록) 무기물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 재간은 없다. 유전공학이 발달하면 식물을 동물로 변형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무생물에서 유생물을 만들어 내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정신의 기원을 따지는 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인간의 감각작용, 인지작용 심지어는 의식의 정체까지도 파악하고 있으나 이것들이 어떻게 영혼으로 바뀌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간의 지식으로 알아낼 수 없는 커다란 gap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창조설이나 불교의 윤회설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창조설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윤회설은 조금 복잡하다.

창조설에서는 모든 무생물에 하느님의 입김을 불어넣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본능에 얽혀 사는 불쌍한 인간들도 하느님의 콧김을 불어 넣으면 영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힌두교에서는 태초에 有도 없고 無도 없었고 死도 없으며 不死도 없었으며 오직 유일하게 애욕, 즉 性만 있었고 했는데 性이란 말은 원래 양과 음, 마음과 육체, 無와 有 그리고 死와 不死가 합쳐진다는 뜻이다. 우리 인간의 세포수를 어떤 이는 66조 라고 하고 어떤 이는 666조 라고도 하는데(짓고 땀에서 감을 잡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원자로 따지면 아마도 666666조(만고 육맹)는 될 것이다. 누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3주 동안 1000조 개의 원자가 우리 몸을 순환하고 DNA의 분자도 6주마다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일년도 채 안되어 우리는 물리적인 몸의 98%를 새것으로 대체한다.

이 원자들은 그 이전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생물의 몸을 순환한 것들이다. 인도네시아의 한 농부가 바나나 밭에다 소변을 보면 그 바나나가 미국에 있는 이원택 선생의 배로 들어왔다가 K가 흡수되어 요긴하게 쓰인 후 다시 배설돼서 아보카도 거름이 됐다가 다람쥐가 따먹고 다람쥐가 뱀에게 먹히고 뱀이 땅꾼한테 잡혀서 생사탕 보양제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한테 바쳐지면, 인도네시아의 한 농부나 이원택 선생이나 김정일 장군이나 다 동서(同棲: 깃들일 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골격이 3개월 마다 새로 바뀌고 혈관은 6-8주마다 교체되는데 관절염이나 동맥경화증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DNA는 자기가 기억한 것만을 찍어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유전공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DNA에 찍혀있는 Genetic Code(유전부호)를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DNA는 4개의 염기들이 이중 나선으로 꼬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아직까지 그 아미노산의 배열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까지 바뀌질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이 아미노산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에 다른 생물에 머물다 나온 것이며 설사 원자를 갈아 치울 수 있다 해도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는 백여 개에 불과하고, 이 또한 다른 생물이나 무생물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다.

즉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원자를 통해서 "나눔"(nanom)과 공유의 세계를 살고 있는 셈이다. 이만하면 왜 불교에서 전생의 원수가 마누라로 태어난다거나 하찮은 미물이라도 경시하지 말라는지 이해가 가능하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변해서 22개의 원자로 분해된 후 그 에너지와 파장은 다른 동물과 공유될 터인즉, 우리의 몸은 단지 우리의 정신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집이라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빈 강통으로 왔다가 빈 강통으로 돌아가나니 육체적(물질적) 육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중장: 정신의 정체 - 일체 유심조

우리의 조상들은 산에도 돌에도 구렁이에도 '영'이 있다고 보았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리와 번개에도 '기'가 있다고 믿었으며 장자는 "나는 매미고 매미는 나 라고" 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어른들도 물활론을 믿고 있는데 이것을 윤회설에 결부시켜보면 삼라만상이 과거나 미래에 자신의 일부였거나 일부로 이루어질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자기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라는 뜻으로 다른 사물에 내 '혼'이 들어있고 내 속에 다른 사물의 '백'이 들어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세상만사를 보고 느끼고 관계하는 일은 우리의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우리에게 투사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인데, 뱀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무서움과 즐거움을 뱀이나 꽃에서 발견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먼저 나온 도표를 보고 이 글을 타자 친 생물학도는 왼쪽은 율창이가 오른쪽은 개구리(다음면에 계속)

紙上法醫



유가족의 태도

노용면(55, 대뉴욕)

법의학을 전공하다 보면 온갖 인생 드라마를 보게 된다. 오늘은 슬픈 중에 슬픈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재산이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을 차지하는데만 신경을 곤두세운다면, 그것을 어찌 가족이라 볼 수 있겠는가.

이른 아침에 92세의 할머니가 자기 집에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지마자 사망하였다. 이럴 때 법의관실은 사망을 둘러싼 환경 상황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케이스를 자연사로 간주하고 가족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겠끔 허가한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는 가족들이 그런 처사를 반대하고 부검을 원했다.

그날 오후 70세 정도로 보이는 딸아들과 40세 정도로 보이는 외손자가 법의관실에 나타났다. 딸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자기 부모는 딸 하나와 아들 넷을 두고 있었고, 아버지가 10여년전

에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막내아들의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고 했다. 막내아들이 부모가 살던 집에 살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래전에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와 부인이 사망하면 그들이 살던 집과 부동산 일체를 다섯 남매가 똑 같이 나누어 가지게끔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부동산이라곤 어머니와 막내동생 가족이 살고 있는 집 하나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막내동생 가족 때문에 부동산을 나누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동생이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 사무처리가 복잡할 것 같다고 했다. 그가 막내동생의 부인을 유령여자로 계속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유럽계 백인은 아닌 듯 했다. 딸아들이 또한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약 2주 전까지 가벼운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퇴원 후에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았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

으니 의심스러운 구석도 있다고 증언 거렸다. 혹시 자기 동생이나 그 '유럽 여자'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언젠가는 어머니 집 근처에 사는 자기 친구가 말하기를 동생이 어머니에게 욕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는 말도 했다. 그러니 어머니 사인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겠다고 했다. 똑똑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가 여러번 되풀이하기를, 가령 동생이 어머니 살해에 관련했다면 그는 유산 분배에서 빠지게 될 것이며, 그런 경우 다른 형제들에게는 편리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마저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외손자가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도 할머니를 부검을 해서 사인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이르기를 만약 가족이 그런 의심을 품고 있다면 경찰에 알려 수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가 경찰에 알리기는 싫다고 했다. 만약 동생이 유죄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의 말투로 보아, 그들의 목적은 동생을 유산 상속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인 듯 보였다. 그런데 이처럼 미묘하고도 사사로운 문제를 거리낌없이 말하고 있는 그가 참으로 뒤편했다. 어머니를 잃은 유가족의 슬픈 태도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결국 부검을 지시하기로 했다.

한편 막내아들의 생활을 조사하니, 그는 집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고, 그의 처는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는 딸을 방문하는 도중이었다. 시체를 부검하니 아주 심한 폐동맥전색증(massive pulmonary thromboembolism)이 발견되었다. 그 할머니가 중풍으로 누워있는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까닭에 다리에 있는 정맥들에 혈전이 생겼고, 그런 후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상처는 아무데도 없었다. 독물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이었다. 그러니 그녀의 사인은 명백한 자연사였다. 동양 유교 사상에서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부검을 반대한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부검으로 두 번 죽일 수 없다고 한다. 아마도 부검하는 것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케이스야말로 사람이 두 번 죽는 듯 보였다. 조그마한 떡 하나를 놓고 그것을 갈라 먹을 사람의 수를 줄이려는 심사인것 같았다 (pie fight). 참으로 슬픈 케이스였다.

References:
1. Yong-Myun Rho: Medical Examiner's Authority, Challenges to Perform Autopsies.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81: 1687, 1981.
2. 지제근, 송계용, 노용면: 원색도보 병리학, 1998.

〈전면에서 계속〉가 연상된다고 했으나 성에 굶주린 이원택 처사의 눈에는 각각 남성 성기와 여성 생식기관으로 보이는 것이다. 즉 개의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것으로 이것은 어떤 생각을 골똥히 하다 보면 그 방면에 있는 신경회로가 두터워져서 모든 자극이 그 쪽(삼천포)으로 빠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상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론은 우리가 정신치료에서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인지요법의 모체가 되고 있다.

같은 돌맹이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군에게 던질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대견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귀찮게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기'를 돌맹이에 붙여 넣을 때 그것이 예쁘게도 또 밍게도 보인다는 말인데, 장자의 말을 빌리면 나도 돌맹이요 돌맹이도 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동안 사람들이 정신의 기원은 내부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그러나 뱀이나 꽃이나 돌맹이가 바로 나 자신이라면 정신의 기원은 외부에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역시 맞는 말이다. 이것을 "정신적인 상대성 원리" (저자가 만들어 낸 말)라고 한다.

우리가 세상 만사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동체라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 몸과 마음은 하나, 사물과 정신도 결국은 하나라는 것으로, 그동안 정신의 정체를 구명하는데 있어서 모든 철학과 과학은 결국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개념에서 한 발 걸음도 진척하지 못하고 있으나, 정신의 기원이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과학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간

서윤석(68, 오하이오)

우리 모두 시간의 물줄기를 저 강물따라 흘러가는 물길을 보라 한없이 많은 순간들이 이어져가는 흐르는 시간을 타는 우리를 보라

한순간 쉬이기도 떠나가기도 하는 우리

공평하고 영원하다는 시간의 흐름을 보라 도도한 물살에 밀려 만나기도 헤어지기도 하는 우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서로 소매를 스치고 가는 우리 설레이는 물결의 소용돌이 속에서 웃고 우는 우리

비람에 불려가는 구름 따라 언젠가는 가벼워진 인연들이 기억조차 아련할 많은 인연들이 길던 짧은 모든 순간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작은 그림자로 남겨지는 우리들이 타고 가는 시간의 물줄기를 보라



레린의 사인



정유석(64, 북가주)

소련 공산주의를 한동안 열심히 따르던 중국은 레린의 시체 처리를 본받아 모택동이 죽자 그의 시신을 방부처리해서 천안문 광장에 영구보존한 것을 이십 년 전 북경 방문시에 본 적이 있다.

한편 오래 전에 북한을 방문했더니 정말 더 웃기는 부분은 오래 전에 사망한 김일성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인 지라 아직도 그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해서 그의 시신을 원래 집무실이었던 금수산 궁전에 시체를 영구보존한다고 했다. 죽은 시체가 십여 년 썩어나 한 나라를 지배한다고 엄숙하게 공언하면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참배를 강요하는 것을 보니 이질감이 지나쳐 무슨 만화를 보는 기분이었다. 그런 황당한 선전을 추종하는 남한의 중북 주의자들도 두뇌가 없는 꼭두각시 무리같이 느껴졌다.

레린이 사망한 후 그의 사인은 철저히 비밀로 알려졌다. 그러나 뇌일혈을 일으킬 두뇌속의 변화는 매독으로 인한 사실이란 것이 근래 역사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레린은 1924년 1월 5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는 죽기 전 3차에 걸친 뇌졸중을 겪었고 결국 이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고 언어 능력을 잃었다. 레린의 죽음을 뇌졸중으로 돌리기 위해 소련 당국은 그가 2년 간 보인 예측할 수 없는 행동, 광기와 조증, 감정 조절을 상실해 보인 폭행이나 이유 없는 분노, 그리고 누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망 등을 감쪽같이 은폐했다.

레린은 낭인 생활을 하던 1902년 파리에 머무는 동안 한 창녀의 단골이 되어 그녀로부터 매독을 옮겨 받았다. 크레몰린의 많은 의사들은 레린이 매독환자였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발설하는 것은 사형을 초래하는 행동이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몇 명의 과학자들을 상당히 우대했다. '조건반사'를 발표한 파블로프 박사는 그들 중 가장 존경을 받는 과학자였다. (개에게 음식 냄새를 맡게 하면 자동적으로 위액이 흐른다. 음식과 함께 종소리를 울리면 역시 위액이 흐른다. 얼마 후에 음식 없이 종소리만 울려도 개의 위장에서는 위액이 방출된다. 이 실험은 아직도 학계에서 진실로 받아들이는 이론이다.)

또 다른 과학자는 류센코 박사인데 그의 이론에 의하면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조작에 의해 쉽게 변화되기 때문에 추운 시베리아 벌판이 거대한 곡창으로 변하고 사과를 심으면 소련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과수원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너무 터무니없고 다른 지역에서 실험해도 성공하지 못해서 그는 소련 과학계에서 퇴치되고 말았다. 지금 류센코 박사의 이론을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파블로프 박사에 대한 존경심은 계속되고 있다.

레린 사후, 그의 죽음에 대한 규명은 파블로프 박사에게만 의뢰되었다. 이에 따라 레린의 죽음에 대한 원인은 한 역사학자에 의해 규명되었다.

래더포드 여사는 뉴욕에 소재한 컬럼비아 대학 도서관에서 파블로프 씨가 1928년 파리에 거주하던 동료 의사 미카일 제르노프와 교환한 서신을 발견했다. 그는 제르노프 박사에게 레린은 매독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말기에 여러가지 뇌 매독 증상을 보였다고 기술했다.

보통 때에도 파블로프 박사만이 공공연히 "(러시아) 혁명은 뇌 매독에 걸린 미친 환자가 이루어낸 결과다."라고 떠들었다. 레린이 사망한 후 "그 두뇌를 부검한 소련의 저명한 의사들은 모두 뇌 매독이란 진단에 동의했다. 그것은 학계에서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발표되지 않았고 소련의 모든 공식기록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기독교나 예수를 미신이라고 비난하는 공산주의 주장자인 레린이 그 범쳐나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 젊은 날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창녀와 성관계를 유지하다가 철저히 매독이란 성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 보인다.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뉴욕 플러싱에 있는 있는 장원루에서 7월 15일 출판 예정인 시계탑 편집을 위해 6월 20일 6시30분에 모임을 가졌다. 개인의 선약이 있었던 서량 위원만 불참하고 전원 참석을 했다.

이번 모임의 특기사항은 이번 4분기동안에 작고 동문이 여섯분으로 가장 높은 기록이다. 우리 동문들이 많이 연로해가고 있다는것을 새삼 느끼게하였다. 특히 편집위원중 노재욱(64) 동문도 별세하였으며 우리 모두 여러 동문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제는 눈에 낀 돋보기 안경 하나로만 충분하지 않아서 손에 또 하나의 돋보기를 들고 시계탑 교정을 보게 되었다. 원고보내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임은 저녁 9시30분경에 끝났다. - 출판위원장 김병석(59)

사흘간 밤이 되면 아내가 미열과 오한 그리고 낮에는 식욕감소와 무력증을 호소했다.

나흘째 되는 날 가족주치의 Dr. Lee 오피스로 찾아갔다. 혈액 검사에는 빈혈이 좀 있고 백혈구 수가 1만 가까이 올랐으며 소변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정상보다 좀 높다고 했다. Pylonephritis 같다고 하면서 Doxycycline 처방을 해주었다. 그날 밤에 다시 오한과 미열이 있었고 다음날 닥터 리에게 전화로 증세를 알렸다.

닥터 리는 아내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응급실로 가보라고 했다. 필요하면 응급실 의사를 보고 자기에게 전화를 하라는 ?이다. 자기가 치료하다 말고 응급실로 아내를 떠미는 것 같아 섭섭하기도 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났다.

응급실에 일단 가면 보통 여섯 시간 체류가 평균치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그의 말을 쫓는 외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닥터 리와 통화를 한 것이 오후 두시 경이었고 부랴부랴 챙겨 입고 아내와 Upper Chesapeake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것이 오후 세시 경이었다. 이른 시간이라 한가할 줄 알았는데 응급실에는 이미 이십 명 가까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가라고 체가리가 싫어 다른 환자 사이에 끼어 기다리니 등록하고 triage를 하는데도 한 시간 넘게 시간이 걸렸다.

간호사가 열을 재더니 102도라고 하며 Jyleuol을 주었고 혈액검사 샘플을 튜브로 여러 개 뽑았다. 물론 소변도 받아 주었다. 일곱 시가 좀 지나서 응급실 의사가 처음 나타났다. 서른 안팎씩 훑어 보았다. 일곱 시에 교대하고 나서 곧 찾아왔다는 인사말을 했다.

네 시간 이상 기다린 것이 내 신경을 좀 거슬렸던지 나는 인사 대신 "I thought you forgot us"라고 말했다니 그 의사가 변명을 하는데 환자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 하는 태도였다.

의사가 CT Scan을 order 했다. 나는 허기가 저 아내가 CT Scan 하는 동안 요기를 해야겠다 싶어 집에 돌아와 저녁을 급히 때우고 다시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 근처 아니 병원 내에도 식당이 있지만 심란한 마음에 음식이 목에 잘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 집에까지 간 것이다. 식후에 응급실을 향해 차를 운전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칠십살이 넘으면서 내 밤눈이 어두워져 내가 밤운전을 극도로 피하는 것을 하는 아내가 오지 말라고 전화를 건 것이다. 아내의 조언이 일리가 있어 중간에서 차를 돌리고 집에 다시 와서 잠을 청하니 잠이 들 기세가 전혀 없다.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밤눈이 어둠던 말건 응급실로 향했다.

잠 열한시가 넘어 입원 order가 내리고 12시 경에 Roxephin이라는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했다. 응급실에 도착한지 아홉 시간 만에 첫 치료가 시작된 것이다. 심장마비 환자나 되어야 응급환자 대우를 받는 곳이 응급실이다. 敗血病 환자는 응급환자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일단 입원을 하니 응급실 의사는 손을 떼고 병원 입원환자를 돌보는 hospitalist 라는 의사가 치료를 맡는다고 한다.

새벽에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같은 방에 입원한 2백 파운드가 넘는 여자가 밤새 코를 골아 잠을 설치었다고 한다. 목이 말라 불러도 와주는 사람도 없고 마침내 나타난 사람은 알았다고 하고 가서는 함흥차사 였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아홉 시경에 아내는 hospitalist Dr. U를 처음 보았다. Dr. U는 아침 회진이 끝나면서 아내를 퇴원시켰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집에 데려왔다.

오후가 되니 아내는 다시 미열과 오한을 호소했고 오후 세시경 Dr. U로부터

전화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내용은 어제 입원할 때 채혈한 혈액에서 Gram Negative Rod (균의 이름)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니 재입원하던지 family doctor에게 연락하던지 하라는 것이다. 아내를 퇴원시키기 전에 피검사 결과를 알아보았어야 하는 책임이



병원행

임 낙 중(59, 메릴랜드)

Dr. U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가족주치의 닥터 리는 이미 손을 떼고 병원으로 보냈었는데 닥터 리를 연락해서 무슨 수가 나겠는가. 나는 Dr. U를 전화로 불러냈다. 재입원을 할 터이니 응급실로 가라는 말만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 Dr. U의 알선으로 병실로 직접 재입원을 했다.

혈액 배양검사 결과 E. Coli라는 균이 나왔다. 이틀간 더 입원한 후 퇴원을 했다. 최종 진단명은 Sepsis by E. Coli due to pyelonephritis였다.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의 위험이 문제가 되는 병인 만큼 그 정도로 회복된 것을 감사했다.

1999년 내가 은퇴한 후로 환자와 의사관계는 역전되고 이제 내가 환자편이 되어 의사를 바라보게 되었다.

내가 현역 의사였을 때에는 의사들은 자기가 돌보던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에도 계속 치료를 했다. 물론 전문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consultation이라 하여 도움을 받았다. 이제 제도가 바뀌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응급실로 보내고 응급실 의사에게 책임을 다 넘긴다. 입원 치료제도가 바뀐 것은 첫째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대폭 줄였다. 보험회사들이 입원을 필수로 의사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변화다. 의사로서는 입원환자 치료가 일이 많고 시도 때도 없이 간호사들이 불러내는 등 골치만 아프고 수입은 적으니 입원환자를 가지지 않으려는 판에 hospitalist 제도가 생겨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둘째로 개업의들이 외래 환자만 보고 마음 놓고 잠도 자고 시간제로 일해보니 것처럼 편할 수가 없다.

셋째로 hospitalist 입장에서 보면 여러 의사들에게서 온 수많은 환자를 시간제로 일하며 치료하니 능률적이고 간편하다. 자기 근무시간 여덟 시간만 채우면 나머지 시간은 자기 것이다.

내 세대의 의사들은 24시간 아무 때고 병원에 불러 나갔고 잠을 마음 편히 자본 기억들이 별로 없다. 그것이 천직이니 당연한 일이라 여기고 감내하며 의사 노릇을 했다. 요즘 의사들은 밤에 불러가는 일 없이 편하게 개업을 한다. 그러면서 수입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

밤잠 못 자던 치료 행위는 응급실 의사, hospitalist 등의 새로운 전문의들이 감당한다. 그러니 의료비는 오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의사들이 편해지고 비용은 오르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의사들이 편해진 만큼 수입이 줄어야만 한다.

2011년도 미국 전문의 평균 수입을 보면 엑스레이 의사가 31만5천불이고 마취과 의사가 30만9천불, 정신과 의사가 17만불 그리고 소아과 의사가 15만 불이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노력과 비용을 합쳐 그 수입이 타이거 우드 같은 운동선수의 몇 십분의 일도 안 된다고 푸념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입이 supply and demand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는 한 이론이 별로 없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요소 때문에 인위적으로

의사 수입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 관하여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아내의 경우 의사가 세 번 바뀌었다. 닥터 리 오피스에서 한 모든 검사를 응급실에서 다시 했다. 물론 되풀이해야 할 검사가 그중에 있다는 것을 나도 안다. 일반적으로 의사나 병원이 바뀔 때마

역해 돈다. 내 친구 의사 한 분이 작은 접촉사고로 길가에 서서 경찰을 불렀다. 목이 좀 아프다고 했더니 앰블런스가 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떠밀려 응급실로 실려 갔다. 각종 검사를 다 마치고는 2시에 실려 간 사람이 밤 12시에 들려 나왔는데 나중에 배를 펴보니 1만3천불이 넘었다. 이러한 과잉 검사, 과잉 치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교통사고를 겪지 않은 사람뿐일 것이다. Malpractice Suit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잉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구실도 인정하지만 병원응급실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검사는 그중에 없는지?

(2) Failure to Coordinate 같은 상해나 병을 여러 의사나 병원이 치료를 담당할 경우 같은 검사를 되풀이 하는 경우가 많다. 전에 치료하던 의사나 병원의 검사와 기록을 쓰는 대신에 쉽고 수입을 올리는 검사를 다시 한다.

(3) 의료 행정이 하도 복잡하고 (4) 의료법이 너무 과중하며 (5) 의료 사기가 심하다.

3, 4, 5의 조목을 설명하자면 한이 없겠으니 몇몇 예만 들겠다.

수술비를 계산할 때 병원을 사용한 비용은 수술 종류에 따라 얼마라고 계산을 하지 않고 수술실 사용료가 시간당 얼마이고 회복실 사용료가 얼마이며 재료가 얼마가 들고 등등 복잡하게 만들어 환자가 전혀 이해하거나 계산할 수가 없게 만들고 그런 수술비용을 계산하는 병원 당국도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허비한다. 비유하자면 호텔숙박비 계산을 그런 식으로 대합실 사용료, 식당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등등 복잡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큰 도시에서는 한인노인센터를 차려 놓고 택시로 노인들을 모셔다가 빙고 등 여흥을 제공하며 혈압을 재주고 짐을 제공한다고 한다. 서류상으로 의사들이 이들을 진찰하는 것처럼 꾸미고 1인당 백수십불씩 정부의 돈을 끌어내는 조직이 많다. 세금을 낭비한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중의 하나였던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에는 미국은 깨끗한 나라인줄로 알았다. 물론 쏟아져 들어오는 합법적 또는 불법적 이민자들이 부패와 악덕도 함께 미국에 수입되는 면도 있지만 미국에 오래 살다보니 미국도 점점 부패가 늘고 정치가들은 드러나지 않게 거짓말로 국민에게 약속하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며 마약거래와 살인 등 범죄는 한국과 비교하여 막상막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가나 사람 사는 곳은 비슷하다는 옛 속담이 맞다.

오늘날 미국의 의료제도가 한국의 의료제도 보다 좋으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의 미국 의료제도의 전망에 관하여 묻는다면 나는 비판적이다.

이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연구나 재료가 부족하다는 전제를 하고 내가 느끼는 데로 내가 비판적인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

첫째로, 의사와 간호사를 위시하여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타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이래로 의사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복지를 위한 봉사가 우선이라는 신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었다. 언제나 예외는 있지만 말이다. 물질적 보상은 이차적이었고 환자 치료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의사들은 노력했고 그래서 의사들이 존경을 받았다.

Malpractice suit로 돈을 버는 trial lawyer들과 의사들을 봉으로 여기는 환자들이 점점 기승을 부릴수록 의사환자간의 인간관계는 악화되고 환자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고 의료제도는 상품화하여 물질적 (다음면에 계속)

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하는 검사는 막대한 검사료의 첨가를 불러온다. 또 의사가 세 번 바뀐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의사 환자의 관계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된다. 동시에 의료 수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입원하여 보니 간호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data 입력에 90%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가 목이 말라 불러도 반응이 없고 어쩌다 반응해도 알았다고 하고는 가서 함흥차사라고 한다. 모든 것이 전산화하고 시설을 최신식으로 바꾸고 병원 건물을 신축하는 등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고통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인가 곁에서 고통을 덜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식간호가 그리워진다.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에 따뜻한 사람이 빠져 나간 많은 교회의 현실과도 비교가 된다.

미국에 4인 가족 평균 의료비가 9년 전 9,235불(2002년) 이었던 것이 2011년도에 19,333불로 두 배 이상 뛰었다. 2008년 미국에 일인당 의료비가 7,146불로 세계 최고이고 GDP의 15.2%인데 life expectancy는 세계 42위다. 미국 의료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2009년 통계에 의하면 Percutaneous Coronary angioplasty를 받는데 미국에서는 14,378불이 들고 캐나다에선 9,277불, 독일에서는 3,347불이 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에 관하여 여러가지 설명이 있다.

의료 technology의 발전에 따르는 의료비 상승, 처방 약품의 가격 상승, 미국 내에 특히 비만으로 기인한 여러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그리고 의료 행정비의 증가 등을 그 원인으로 열거한다. 의료기구의 발달로 새로운 기구가 나올 때마다 비용은 오른다.

간단한 예로 체온계가 신형으로 바뀔 때마다 편리해진 대신에 비용은 늘다. 병실에서 사용한 주사바늘의 처리과정에서 누가 찔리면 병원은 고소를 당하는데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들 병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막대하다. 새로운 수술방법 예를 들면 Robot 수술이 발전하자 병원 로버트 수술 시설을 설치하느라 기백만 불을 쓴다. 새 기술을 배운 의사의 fee는 새로운 수술인 만큼 오를 수밖에 없다. 새 CT 촬영기, 새로운 MRI, 새 Pet 촬영기 등이 나오고 새 컴퓨터 Ipad가 나오면 바꾸는 식으로 새 기계를 도입해야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의료제도에 종사하는 행정비 (administrative cost)가 전 예산의 7%라면 적은 것같이 들리지만 2010년도 미국 의료비가 2.6 trillion이니 7%라면 행정운영비가 1,800억불을 넘는다는 얘기다. 2011년도 Dr. Donald Berohick의 추산에 의하면 의료비의 20내지 30%가 waste라고 하는데 5천억 불이 넘는 돈이다. 이 waste의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1) Overtreatment - 과잉치료라고 번

오늘 첫날



허선행(64, 대뉴욕)

내가 세상에 태어났던 날이 바로 내 인생의 첫날이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첫날을 생일이라고 하면서 매년 그날에 축하도 받으면서 촛불도 끄고 현대에서는 소위 생일케익을 나누어 먹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미역국을 끓여 흰 쌀밥에 아침 식사를 푸짐히 해주면서 건강을 비는 날이기도 했다.

Alice Morse Earle(June 27, 1851 ~ February 16, 1911) 이라는 작가이며 역사가인 그 여인은 이런 말을 했다.

The clock is running.
Make the most of today.
Time waits for no men.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또한 이 글은 Eleanor Roosevelt가 즐겨 인용했다는 구절이기도 하다.

첫날하면 그 첫날의 가치수도 부지기수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입학을 위해 첫 시험 보던 날이라든가 합격, 불합격을 알게 된 그날, 바로 그날이 우리들이 시험대에 올랐던 첫날이기도 하다. 어느 여인을 보았던 첫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때 아니면 그 남자를 본 첫날부터 사랑에 빠졌던 그 당시, 그리고 첫날이 아득하기만 했고 내가 의사였던 첫날, 처음으로 아픈 사람을 도와주며 그의 병을 고쳐주게 됐던 그날,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게 되었

던 첫날 그리고 나서 이 나라의 언어와 풍습을 익히기면서 귀가 터지기 시작했던 그날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고 만족해왔던 그 수많은 날들이 사실은 모두 나의 첫날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게 되면 첫날밤을 늘 어떻게 지내는가하는 호기심이 앞서지만 사실 결혼한 첫날이 우리 결혼한 모든 사람들의 행복추구의 첫날이라는 것은 아예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서 남녀의 본능적인 생산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게 마련이다.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사는 매일의 일들이 모두 이 남아있는 많은 날들이 모두 "첫날"의 행사라고 본다면 세상 모든 일들이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적극적이며 낙관을 추구하는 일이 된다고 본다.

사실 최근에 누가 말한 "오늘은 내가 살 수 있는 앞날 중에서 그 첫날"이라는 명언을 되새기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여생을 상상해 보게 되었다. 70번 이상 생일을 겪어 왔지만 50이후부터 생일 맞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니었고 자식들이 차려주는 생일상을 안 받을 수도 없었으니 늙어 가면 누구나 느끼는 무력함,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해놓은 것, 기여한 것, 벌여 놓은 것 없으니 그저 자신의 무능력함에 굴복하면서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리 즐겁고 보람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우리의 본능은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보자는 잠재적인 욕구이겠으니 우리 연로한 분들의 구호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건강이겠다. 어디가나 Senior 대접받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여건을 받아들이다. 오늘 "우리 여생의 첫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 삶의 첫날의 행사로 맞아서 오늘을 굳건히 살자고 그러면 내일도 내일로 부터 우리 여생의 첫날이 뒤편에 틀림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방법으로 Identity Theft 라는 fraud를 막는다는 말인가? 의료사기도 막을 길이 없다. 독재국가에서처럼 몇 사람 잡아 총살을 한다면 모를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범죄를 막을 길이 없다.

한국에서 전 국민의 의료 보험제를 도입한 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철권정치 때문에 가능했다. 예를 들면 진찰료를 몇 불로 줄이고 위경검사나 대장경검사의 의사 의료수가를 단 몇 십 불로 줄였다. 미국에서 이처럼 의료수가를 대통령이 강제로 정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은 malpractice law를 개혁하지 않겠다고 했다. malpractice insurance fee를 20만불 이상 내는 전문 의도 있는데도 법을 고치지 않겠다는 말은 약한 의사는 누르고 썬 변호사 돈벌이는 그냥 두겠다는 소리다.

의사의 실수로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변상하는 제도를 반대하는 의사는 없다. 단지 제도를 고쳐서 trial lawyer가 횡재하는 것을 견제하자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2010년도에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구가 49.9%였다고 2011년에는 50.7%로 늘었다. Obama Care는 2014년까지 그중 21%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고 한다. 우선 이렇게 급증하는 의료혜택을 감당할 인적자원(의사와 간호사)이 태부족이다.

또 그 비용은 일부 부자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면 될 것처럼 말을 한다. 내 용을 조금 알고 보면 세금을 조금 더 내면 그 비용이 나온다는 말은 사실이 아리라는 것을 간단한 산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알 수가 있다. 일단 제도를 바꿔 놓고 난 다음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오르면 의료혜택이 배급제로 전락하던 의료혜택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영어로

〈전면에서 계속〉 보상이 환자 진료에 점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60년대 내가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딜 때만 해도 의사들은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직업으로 자부했고 환자들은 의사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사가 실수를 해도 사람이니 실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너그러운 눈으로 보았다. 그 당시에도 예외는 있었지만, 한국의 malpractice suit는 아직 미국만큼 성행하지는 않지만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둘째로 malpractice suit에 대한 대책 없이 의료제도가 상품화하고 의사와 환자관계가 악화일로인 현 미국사회 풍토에서 의료제도의 개혁 즉 Obama Care 등은 정치적인 쇼로 끝나다가 의료법이 법적 투쟁에 휘말려 풍비박산이 되는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치적 투쟁으로 당분간 미국의 조야를 혼란에 빠트리든가 등 그 말로가 눈에 보인다.

이 혼란을 틈타서 기회주의자들이 일확천금을 노릴 것이니 의료비는 끝없이 상승할 것이고 의료제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로 Obama Care를 추진한 사람들은 fraud를 방지하여 얻은 예산으로 운용하지만 공산국가에서처럼 몇 놈 잡아다 공개처형할 수가 있으면 몰라도 fraud 방지란 완전히 탁상공론인 것을 나는 안다. 이빨 빠진 호랑이를 누가 무서워하겠는가.

2010년도에 미국에서 1천5백만 명이 Identity Theft의 결과로 5백억 불의 손실을 보았다. 잡힌 범인의 7% 정도다. 대통령이 Identity Theft를 근절하고 절약한 5백억 불을 건강보험료로 돌리겠다고 한다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무슨

농담 골목

남편 - 그 사람은 당뇨병 환자요.
처 - 그러니 그의 말소리가 그렇게도 달콤하군요. (면)

남편 -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지?
처 - 아주 식도 같아요.
남편 - 식도들이 얼마나 이쁜데. (면)

남편은 아내가 중태에 빠졌으므로 계속 그녀 곁을 떠나지 못했다.
아내: 여보,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만약 내가 죽으면 어찌 하실거죠?
남편: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난 아마 미쳐 버릴거야.
아내: 하지만 당신은 재혼할테지?
남편: 그야 미쳐 버렸으니 재혼하겠지. (이덕송)

의부증이 심한 아내가 있었다. 와이셔츠에 여자 머리카락을 묻혀 온 남편을 보고,
아내: 여보! 도대체 어떤 계집애랑? 으이고! 내가 못살어!
다음날 남편은 와이셔츠에 머리카락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기양양하게 귀가했는데,
아내: 흥! 이젠 대머리 계집애랑 놀아나는군! (이덕송)

머리가 좀 모자라면 어때?
'머리가 좀 모자라면 어때? 예쁘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한 남자가 아이큐 70밖에 안 되지만 몸매가 섹시하고 늘씬한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남자는 당연히 오케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자존심이 상한 남자가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여자의 대답
"왜냐하면 우리 집 전통은 집안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거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엄마와, 외삼촌은 외숙모랑, 그리고 고모부는 고모랑... (정정수)

있을 때 잘해
옛날에는 마누라가 죽으면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씩 하고 웃었다며?
그런데 요즘은 남편이 저 세상 가면 마누라들이 거울 보며 이리다네.
"아직 내 몸매 쓸만 한디,
전세를 놓을까? 월세를 놓을까? 아냐, 일수를 찍어야지!" (정정수)

천당에는 기생, 술, 그런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옥에만 있습니다. (철)

지옥에 가면 옛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기)

They don't care 다.
결과가 나쁠수록 결국 National Health 제도로 갈 수 밖에 없으니 오히려 그들의 목적은 달성하는 셈이다. National Health가 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 미국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개혁되든가 시장 경제를 지키든가 택일하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사회주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제도가 비능률적이고 의료제도도 정부가 운영해서 진료의 질이 향상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 제도 개혁은 시도할 때마다 혼란한 틈을 타서 의료보험 간에 또 병원 간에 합병과 이산으로 수백만에서 수억불의 이득을 보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생겼다. 어떤 도시에서는 엑스레이 의사들이 단합하여 그룹을 만들고 그 도시 내 병원마다 엑스레이 과를 다 독점하여 의사 1인당 년수입이 백만 불이 넘는다고 한다.

어설픈 의료 개혁이 굶어 부스럼을 만들어 어부지리를 보는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생길수록 의사들에 대한 신망도는 떨어지고 의료비용은 상승한다. 나도 과거 많은 무료 환자를 치료하면서 불평한 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보람도 느꼈다. 한 번도 무료 환자라고 하여 진료를 거절하지 않았다. 의료제도 개혁으로 이러한 미덕도 사라지고 있고 무료 환자를 거절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응급수술이 아니면 수술이 지연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드는 보험이 따로 있어 이중으로 보험을 가지게 된다. 전

국민의 균등한 무료 의료혜택을 선전하는 북한의 의료제도의 실상을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보통 시민은 아스피린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도 미국경제붕괴 때문이라고 선전하지만 의료혜택의 평준화를 자랑하는 국가들이 경험하는 의료혜택의 질적 저하는 진리와 같은 사실이다.

한국에서 시도한 고등학교 평준화나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경제적 평준화 등등 평준화가 그 방면에 질적 향상을 가져온 예는 역사상 없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한 교실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좋은 학생에게 머리가 둔한 학생을 앉으라고 강제한다면 그런 평준화가 무엇을 선취할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내가 나이가 들다보니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예견하건데 앞으로 미국의 의료제도는 험난한 시행착오 끝에 어느 정도의 개혁은 가능하겠지만 내 생전에 의료혜택의 질이 향상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내 비관적 절망이 슬프다.

내 동료들이 우리는 좋은 시절에 의사 노릇을 했지 하며 위로의 낚두리를 나누는데 나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저리다.

내게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의료제도는 너무나 방대하여 한 두명의 정치가가 단시일 내에 개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창출할 수가 없다.

Pandora의 상자는 이미 열렸다. 나의 의사 시절은 추억의 세계로 날아가다. 인술이란 말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내가 비관적인 답밖에 줄 수 없는 현실이 슬프다.



2012 MASTERS 참관기

최순채(66, 대뉴욕)

작년 9월 내 70회 생일기념으로 우리 애들이 올해 76회 Masters tournament에 우리 부부를 보내 주기로 했다. 전문적인 여행사를 통해 package tour를 하면 편하기는 하지만 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애들과 같이 직접 준비해 보기로 했다. 첫 번째가 입장권 구하는 일, masters.com을 통해서 신청을 해 보았지만 복권 당첨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되었다.

2013년 tournament ticket(\$75) 신청은 6월 30일로 마감되었고 practice round ticket(\$50) 신청은 7월 30일까지 On line으로 할 수 있다. e-bay에서도 살 수 있지만 비싼 경비를 들여 거기까지 갔다가 입장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sports event ticket을 전문 취급하는 StubHub.com을 이용하기로 했다. Supply and Demand 원칙에 따라 값이 변하지만 월 화 수 practice round ticket은 \$250부터, 목 금 토 일 tournament ticket은 \$750이상 주어야 되지만 골프장 입구에 현장사무소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 보장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호텔 구하는 일, Augusta에 있는 호텔들이 보통 때는 하루에 \$80-\$90정도 받는데 Masters week에는 하루에 \$550 이상을 요구한다. 이곳저곳 전화 문의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 뒤 공항과 골프장까지 free shuttle을 해주고 정식 아침식사와 free internet을 사용할 수 있는 Holyday Inn으로 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항공편 예약, Augusta에 가는 항공편은 Delta와 US Airway가 독점하고 있어서 Masters week에는 Newark에서 Augusta까지 왕복하는데 최소 \$450정도는 내어야 된다. 더 먼 거린인 Florida 가는 것 보다 훨씬 더 비싸다. www.AARP-Expedia.com에서 Air+Hotel package로 예약을 하니깐 몇 백 불 더 절약할 수 있었다. Atlanta로 가서 차를 빌려서 Augusta로 가는 길(140마일)에 골프장에서 45분-1시간 거리에 있는 호텔(\$200정도)을 이용하면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Augusta National Club 입구에 무료주차장이 있고 만일의 경우 근처 상가 주차장에 하루 \$20 정도 내면 된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우리는 사진도 찍고 골프장 답사도 할겸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 갈수 있는 화요일 practice round와 par-3 contest가 열리는 수요일 구경을 하고 토너먼트는 집에서 TV로 보기로 했다

4월 2일 월요일 오후에 Augusta 공항에 도착했다. 조그만 공항이지만 조용하고 깨끗했다. 공항 건물은 꼭 private club house를 닮은 스타일이고 건물 사이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았고 복도에는 Raymond Floyd가 pitching하고 있는 모습의 동상이 있다. 활주로는 60여대 이상의 private jet 비행기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부자들인 클럽 멤버들이 타고 온 것 같았다. Augusta는 생각보다 큰 도시였다. 조지아주에서 아틀란타 다음 두 번째 큰 도시라고 한다. Fort Gordon 군사기지, 주립대학, Ez-Go,

Club Car 등 golf cart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한국 사람은 1,700여명이 살고 있고 한국식당도 서너 개 된다고 한다.

4월 3일 화요일 아침 8시에 Augusta National Club에 도착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 검색대 같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휴대품은 경비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검사하지만 검사대를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수천 명이 검사대를 통과하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입장권은 별도로 scan을 하는데 입장권 아래쪽은 클럽의 로고로 만든 hologram이 붙어 있어서 위조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골프장에 들어서면 우선 넓고 큰 규모에 놀라게 된다. 365에이커가 된다고 하니 보통 골프장의 2-3배는 되는 것 같았다. 매끄럽게 다듬어 놓은 fairway는 잔풀 하나, 민들레 하나 없이 보통 집의 카펫 같았고 큰 bunker 속의 하얀 모래는 체로 쳐낸 듯 곱지만 한 가지 섭섭했던 것은 그 유명한 azalea나 magnolia 꽃을 하나도 볼 수 없었다.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3월중에 이미 다 피고 쳐버렸기 때문이었다.

소문 난대로 Augusta course의 가장 큰 특징은 넓고 빠르고 경사와 굴곡이 심한 그린인 것 같았다. TV에선 보이지 않지만 그린 위에 공을 올려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린 어디에 공을 올려놓아야 하는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 홀에서 15-20피트 거리이지만 조금 평평하거나 오르막이면 그래도 버디 기회가 있지만 홀 바로 옆에 공을 떨어뜨렸는데도 20-30피트이상 엉뚱한 곳으로 굴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TV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Augusta course는 오르막 내리막 경사가 아주 심하다는 것이다. 긴 내리막 길 홀(10th 홀 495야드 par-4, 11th 홀 505야드 par-4)도 있지만 대부분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에 있는 그린에 공을 올려놓아야 된다. 처음 Augusta 코스를 만들 때 관중들이 관람하기 쉽도록 언덕을 많이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Stadium Course" 로 건설했다고 한다. 그린 근처에도 앞쪽은 앉아서 보는 자리 뒤쪽은 서서 보는 자리를 줄을 쳐서 구분 해놓아서 B. Jones와 함께 Augusta Club을 세운 C. Roberts가 강조한 소위 "Masters Experience"를 선수나 관중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것 같았다. 안에서마다 에티켓을 강조하고 경사가 심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뛰지 말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오랜 전통과 경험으로 그 많은 관중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감탄할 정도이다.

휴대폰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곳곳에 세계 어느 곳으로나 무제한 무료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를 설치해 놓았고 gift shop이나 간단한 음료

를 파는 concession stand에서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대지만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법이 없다. 기념품 값도 보통 pro shop과 별로 차이가 없는 실비 가격이다. 자기들의 명성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Masters 로고가 붙어있는 두꺼운 캔버스로 아주 튼튼하게 만든 접는 의자가 carrying bag까지 합쳐 \$30이고, 우리 두 사람이 점심으로 핫 샌드위치 2개, 칩과 아이스크림, 마실 것 2개를 샀는데 총액 \$12이다. gift shop 바로 옆에 UPS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집으로 부치거나 무료로 짐을 보관해주는 check stand가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연습 라운드 도중 16th 홀(par 3, 170야드, 조그만 연못을 건너가는 홀)에서 그린 위에 공을 올리는 연습샷을 한 뒤 선수들 모두가 낮은 궤도로 공을 쳐서 물위로 굴러서 그린에 공을 올리는 연습을 하고 간다. 어떤 연유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나 연습하는 도중 재미로 해 보는 전통인 것 같았다.



수요일 오후에 열리는 par-3 contest는 클럽하우스 북쪽으로 아름답고 조그만 호수 두 개 주위에 만든 9홀 코스에서 참가선수들 뿐만 아니라 전 챔피언 등 초청된 사람들이 참가하고 선수들은 자기 애들을 캐디 옷을 입혀서 온 가족이 함께 라운딩 하는 일종의 fun game으로 하는 경기인데 1960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hole-in-one이 73개, 2002년에는 5개, 올해는 2개가 나왔고 par-3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한번도 Masters에서 우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은 꼭 이기겠다는 욕심이 없다고 한다.

올해의 honorary starters로 나온 Nicklaus, Palmer, Player가 같이 쳤는데 Player는 지금도 경쟁심이 강해 다른 두 사람보다 공을 더 멀리 치기위해 신체단련훈련을 해왔고 지금도 자기

나이(76)보다 5타 적은 7타 정도를 친다고 한다. 올해는 오후에 소나기가 와서 par-3 경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다음날 목요일 경기시작을 위한 준비로 관중들을 일찍 퇴장 시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긴 물건들을 찾기 위해 check stand 앞에서 비를 맞으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자 클럽측에서 \$45짜리 Masters 우산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고 부자클럽의 후한 인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

Masters 경기 마지막 날, 두 번째 play off 홀인 10th 홀(495야드, par-4)에서 Watson이 156야드 남은 거리를, 40야드 훅샷으로 핀 옆 15피트에 붙여서 극적 우승한 것을 "circus shot", "Watson followed his worst shot of the day with is best" 라고 떠들썩 했지만 10th 홀은 긴 내리막길에 왼쪽으로 경사가 심하고, 오른쪽에는 벙커가 많아서 어려운 홀인데다가 Augusta 코스는 fairway 옆이나 나무 밑은 전부 솔잎으로 두껍게 덮여 놓아서, 골프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솔잎 위에서 공을 치려면 미끄러지기 쉬워 하체 균형 유지하기가 어렵고 공이 어떻게 날아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날 우승 샷은 정말 "miracle shot" 이라고 할 만하다.

Golf tournament중 Super Bowl이라고 할만한 "Masters Experience"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St. Andrews Old course처럼 한번쯤은 경험 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후기 한 가지, Augusta에서 하루 저녁은 한국 식당에서 먹기로 하고 택시를 불러서 \$10을 내고 호텔에서 3.5 마일쯤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택시와 짧은 운전수가 너무 지저분했기 때문에 다른 택시를 불렀다. 설상가상으로 나이 먹은 풍모 할머니가 손자인 듯 한 어린애를 태우고 왔는데, 차가 얼마나 험했는지 앞문이 덜덜거리고 엔진소리가 요란해서 가다가 서 버릴 것만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 했는데 호텔에 도착해서는 "This is Masters week" 하면서 \$40을 내란다. 갈 때는 \$10밖에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참 실랑이를 한 뒤에서야 \$10을 주고 내렸다. 차를 타기 전 요금 확인을 하지 않은 실수였다.

유혹(誘惑)

방준제(70, 대뉴욕)

아주 묵은 책을 다시 읽고 있다. 이광수 (1892~?)가 지은 "원효대사"이다. 그가 50세가 되어 저작한 소설이다.

많은 독자들이 한 번쯤은 읽었을 소설, "원효대사"라 긴 언급은 피하고, 한 두 마디만 소설에서 읽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작 중 인물로 나오는 "대안대사"가 수련 시절에 스승인 노승의 밥을 짓느라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 무심코 한 말 - "나무가 다 타니 물이 끓기를 그치도다"라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스승 왈 - "이제 세상으로 나가도 되겠다"는 그 한마디와 "일행(一行)이 만언(萬言)보다 낫다"던 원효의 말이 소설을 읽은 후 항상 내 곁에 맴돌고 있다.

나는 한국 사람만큼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은 없다고 항상 느끼고 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쓰고, 판 데서 퍼와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비판 없

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솔직한 심정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비속어이긴 하지만, 공공연히 쓰는 개판이고, 왜 그리도 개판치는 인간군들이 많은지 어리둥절 해 진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데서 오는 혼란 감이다.

퍼다 나르는 글들을 빌려 전달되는 메세지는 오욕칠정(五慾七情)에 관한 얘기가 많다. 욕심 다 죽이고, 흥내라도 도사연(道士然)해 보자는 데, 그렇게만 된다면야 한국은 도사(道士)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야 할 텐데, 돈이 될만한 데는 학력, 지위, 경력은 저리 가라하고 덱덱 덱덱 주어 먹지를 않나,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행위도 거기서 떡고물이라도 주어 먹으려는 것인지? 아연하고 질색하고 메스꺼울 때가 많다.

얼마 전에 타계하신 법정스님의 글을 참 좋아한다. 글이 맑고, 글에서 향기가 물씬 난다. 살아 생전이나 세상 하직 후 스님이 글로 말씀으로 전한 "무소유!" 천하에 회자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세태는 왜 이리도 지저분하고 뉘새만 나는지? 참 알 수가 없다.

우리 모두 말로만 도사연(道士然)할 것이 아니라, 한마디 근사한 말 한마디 뱉어내기 전에 한 번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유혹(誘惑)을 받아 봄 직하지 않은가?

회비, 후원하신 동문

2011년 7월 3일 ~ 2012년 6월 30일

- 1941 이규용
- 1949 박근수 김지익
- 1951 이상하 오정희 박준홍 최영수
- 1953 이상봉
- 1955 노용면 양거영 박병원
- 1956 김신형 도상탁 민병각 박상기 서상철 신명수 유호준 윤신원 조동립 주창준
- 1957 강영섭 김양호 김용진 김일훈 윤 찬 이동성 이민자 임종식 임종원 정구영 정진목 차봉희 한성택
- 1958 김기태 김백년 김부근 김수산 김숙희 김시한 김윤범 김해암 박용화 박호현 배영섭 송세엽 신상균 유영호 유치열 이동립 이동목 이민택 이상설 이운순 이종국 이종용 임영신 최병두 최정희 최창송 한영수
- 1959 강상진 강제룡 김교안 김병구 김병석 김용덕 김은섭 나길진 박선용 박용순 반응걸 방성운 신영철 신한수 이교락 이종수 임나중 임원기 정태진 최대한 최용천 최종진 최해숙 한달수 한성업
- 1960 권기홍 김영환 김완주 김인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춘명 선우문 송영조 염국용 이광준 이덕승 이순환 이종석 이효빈 임종원 임필순 전희근 정낙섭 조재동 한성수
- 1961 강창욱 계훈택 고의걸 김영기 김영철 김유홍 김예흠 박승균 박준환 박호성 서휴열 손기용 손주현 안창현 양명교 이재두 이재승 이준우 이한수 이해원 이회백 이회경 장성환 정의철 정철용 조은순 차철준 최공창 최용성 최지원 최태순 한수웅 황현상
- 1962 구정율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김호균 남성희 민경환 박종건 박진수 박찬형 송영두 오태요 유충국 윤홍철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상원 이석우 이영웅 이용길 장병호 장함순 정 태 정정수 조명호 최영수
- 1963 고영희 권영재 권영조 김갑중 김계윤 김광섭 김승태 김재종 김정일 김주승 김청하 김태웅 김태형 김택수 김현철 김현학 마동일 박세록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양찬기 왕규현 윤영섭 윤영욱 윤진수 이기환 이능석 이법세 이병준 이승현 이종두 임춘수 장세곤 장인호 조열하 조한원 진병학 최찬혁 추재욱 하상태 한광수 한기현 선우건영
- 1964 강찬만 권정덕 김용국 김용두 김태환 라찬국 박세준 박한영 방 준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양문택 유 강 유참남 유효명 윤홍기 이광신 이길수 이용만 이유찬 이재풍 이정은 이종성 이주영 이종모 이홍표 임대목 임병훈 전희택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주의돈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선우세현
- 1965 권태해 김건언 김옥현 민경탁 박수안 서좌일 손광호 이광선 이법석 이재진 이정의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잠재찬 전영근 정길화 조성구 지영환 채도경 채무원 한재은 황규정
- 1966 광일성 김경세 김용재 김우신 김은한 김의신 김진수 김충규 남궁승 민발식 윤명선 이명희 이상근 장한교 정양수 조관상 조규용 조의열 최순재 최영자 한일성 황 철
- 1967 김성철 김태웅 박정일 방정화 유진일 육태식 이근용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정화 이준식 임 번 지일성 최무용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 철 김경인 김영남 김주평 김희주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관우 서윤석 서진석 송창호 신규호 안국환 안세현 유우영 이건일 임공세 정재성 차재철 최 철 한민원 홍광신 황훈규
- 1969 김병오 김중권 김창남 김홍서 도상철 변영석 송기인 송용재 신영찬 안병일 양재관 엄규동 육순재 윤효윤 이승공 이충호 이치훈 임안무 임용규 조중행 최종일 최종진
- 1970 김형달 문성길 박홍식 방준재 송요준 여준구 유철희 이성춘 인정길 장극기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홍 건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고기영 광승용 김 훈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창구 김효순 노재홍 박동수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오동환 오상현 이남수 이상길 이원택 이종일 이회영 장 철 장문석 정인용 조세진 최수강 최영철 홍성진 황동하
-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박명영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이신재 장병호 정진우 정희현 최인섭 황용규
- 1973 고용규 김정용 나두섭 문대욱 민인기 박진섭 방병기 서인석 송정자 심완섭 오인환 위장호 이계석 이영복 임준형
- 1974 구재훈 권철수 김용진 이진현 이홍재 최태식
- 1975 김자익 박인영 전경배
- 1976 김대중 김승관 김정아 정경화 한승신

- 1977 강준희 박일우
- 1980 박남훈
- 1986 이영인
- 1978 김동수 전영식
- 1983 심인보 전원일
- 1989 오무현
- 1979 백승원 이혁엽
- 1985 박종효
- 1994 안상훈
- 2000 황필규

29th Convention Donation

| | | | |
|---|----------------|---------------|----------------|
| 한용현(48) 100 | 강신호(52) 10,000 | 이종용(58) 125 | 이만택(58) 200 |
| 최창송(58) 200 | 이동목(58) 100 | 김병구(59) 25 | 염극용(60) 100 |
| 이종석(60) 100 | 강창욱(61) 50 | 이혜원(61) 500 | 박찬형(62) 100 |
| 추재욱(63) 2,000 | 권정덕(64) 4,000 | 허선행(64) 700 | 이재풍(64) 200 |
| 유창남(64) 500 | 최준희(64) 300 | 권정덕(64) 4,000 | 송원길(64) 200 |
| 이홍표(64) 125 | 이성근(66) 75 | 김주평(68) 75 | 차재철(68) 200 |
| 박용현(68) 3,000 | 안세현(68) 75 | 윤효윤(69) 250 | 엄규동(69) 25 |
| 배성호(71) 300 | 서정자(71) 75 | 정인용(71) 525 | 광승용(71) 300 |
| 김재석(72) 500 | 석창호(72) 500 | 나두섭(73) 100 | 민인기(73) 100 |
| 박영배/박명희(73, 서울) | 10,000 | 방병기(73) 200 | 문대욱(73) 10,000 |
| 서인석(73) 1,000 | 김천일(73) 100 | 정희원(75) 2,000 | 한승신(76) 100 |
| 김정아(76) 100 | 권오기(78) 200 | 백승원(79) 2,000 | 박남훈(80) 25 |
| 성상철, 백남선, 양정현, 조수현, 김전, 양요한, 박명희/박명희, 전병훈/정애리, 최인영, 오정성 (73년 동기 cruise 참석자, 서울) | 2,000 | 모교동창회 | 3,000 |

General Donation

| | | | |
|-------------|-------------|---------------|-------------|
| 박근수(49) 75 | 김지익(49) 100 | 나수섭(50) 100 | 노용면(55) 500 |
| 서상철(56) 25 | 김윤범(58) 100 | 송세엽(58) 100 | 강상진(59) 200 |
| 정태진(59) 25 | 강창욱(61) 50 | 황현상(61) 75 | 이기범(62) 50 |
| 한광수(63) 200 | 이법세(63) 50 | 김계윤(63) 75 | 진병학(63) 125 |
| 이유찬(64) 200 | 정양수(66) 100 | 김성철(67) 75 | 이건일(68) 100 |
| 이승공(69) 100 | 김형달(70) 50 | 여준구(70) 50 | 서상현(71) 75 |
| 김유식(71) 175 | 박동수(71) 75 | 최인섭(72) 5,200 | 임준형(73) 100 |

Scholarship Fund

| | | | |
|------------------|--------|-----------------------|--------|
| 김태웅(63, 김태웅 장학금) | 10,000 | Mrs. 송관호(64, 송관호 장학금) | 10,000 |
|------------------|--------|-----------------------|--------|

Charity

| | | | |
|----------------|---------------|-------------|--------------|
| 강신호(52) 10,000 | 노용면(55) 200 | 김신형(56) 500 | 이운순(58) 300 |
| 최창송(58) 1,000 | 김은섭(59) 500 | 강상진(59) 300 | 정태진(59) 25 |
| 권기홍(60) 1,000 | 이회경(61) 200 | 민경환(62) 100 | 이상무(62) 100 |
| 김한중(62) 200 | 임춘수(63) 100 | 한기현(63) 200 | 선우건영(63) 200 |
| 추재욱(63) 1,000 | 주의돈(64) 200 | 홍선경(64) 100 | 한태진(64) 100 |
| 최준희(64) 200 | 권정덕(64) 200 | 이한중(65) 300 | 김건언(65) 100 |
| 최영자(66) 500 | 민발식(66) 200 | 최순채(66) 200 | 한영수(67) 200 |
| 최 철(68) 100 | 김중권(69) 200 | 강창홍(71) 600 | 조세진(71) 50 |
| 정인용(71) 100 | 광승용(71) 300 | 노재홍(71) 200 | 석창호(72) 300 |
| 방병기(73) 100 | 서인석(73) 300 | 임준형(73) 100 | 김용진(74) 100 |
| 김자익(75) 600 | 백승원(79) 3,000 | 심인보(83) 500 | |

Green Project

| | | | |
|----------------|--------------|-------------|-------------|
| 박준홍(51) 10,100 | 김은섭(59) 400 | 염극용(60) 100 | 정태진(59) 25 |
| 한성수(60) 75 | 선우건영(63) 200 | 허선행(64) 100 | 민발식(66) 200 |
| 변영석(69) 100 | 서정자(71) 75 | 조세진(71) 125 | 정인용(71) 250 |
| 오용호(72) 100 | 서인석(73) 100 | 김천일(73) 200 | 임준형(73) 100 |
| 박남훈(80) 125 | | | |

Member Directory Fund

| | | | |
|-------------|-------------|-------------|-------------|
| 나수섭(50) 75 | 이상하(51) 100 | 김신형(56) 100 | 차봉희(57) 100 |
| 임종원(57) 75 | 김양호(57) 100 | 임영신(58) 50 | 이운순(58) 100 |
| 송세엽(58) 75 | 김은섭(59) 100 | 최혜숙(59) 100 | 김병구(59) 100 |
| 이교락(59) 100 | 이순환(60) 75 | 박춘명(60) 200 | 박명근(60) 50 |
| 염극용(60) 100 | 최지원(61) 75 | 장성환(61) 50 | 황현상(61) 100 |
| 최태순(61) 25 | 강창욱(61) 50 | 민경환(62) 125 | 윤홍철(62) 75 |
| 이기범(62) 25 | 김한중(62) 100 | 하상태(63) 200 | 한광수(63) 125 |
| 권영조(63) 100 | 김현철(63) 100 | 장세곤(63) 50 | 김태형(63) 100 |
| 이홍표(64) 100 | 양문택(64) 100 | 홍선경(64) 100 | 이한중(65) 100 |
| 채도경(65) 100 | 이재진(65) 100 | 이한승(65) 75 | 장한교(66) 50 |
| 이소희(67) 100 | 차재철(68) 75 | 변영석(69) 100 | 윤효윤(69) 100 |
| 이승공(69) 100 | 이상길(71) 50 | 오동환(71) 100 | 김창구(71) 75 |
| 김성환(71) 50 | 정진우(72) 100 | 오용호(72) 100 | 서인석(73) 200 |
| 임준형(73) 100 | 오인환(73) 100 | 권철수(74) 100 | 김대중(76) 100 |
| 김승관(76) 100 | 김동수(78) 100 | 전영식(78) 100 | |

동창회비 납입 및 후원금 납입

Annual Dues & Contributions (July 1, 2012~June 30, 2013)

| | |
|------------------------------|-----------|
| MEMBERSHIP DUES | \$125.00 |
| GENERAL DONATION | \$ |
| DONATION FOR 2013 CONVENTION | \$ |
| SCHOLARSHIP FUND | \$ |
| CHARITY FUND | \$ |
| GREEN PROJECT FUND | \$ |
| NEW DIRECTORY FUND | \$ |
| TOTAL | \$ |

Name: _____ Class: _____

E-Mail: _____

Please make your check payable to SNUCAA / Your Dues and Contributions are Tax Deductible.

시계탑 원고모집 안내

모집하는 원고 내용

- 동기 및 동문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종교적인 내용은 사양합니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성명과 학년을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바랍니다.
- 아래한글, World를 사용한 word text로는 2매 정도로 e-Mail, or CD로,
- 모든 산문은 원고지는 200자 12매 내외, 기행문은 23매 내외로 해 주십시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bkimmd@gmail.com



서울의대미주동창회 제30차 학술대회를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래와 같이
예정하고 있어오니 동문들께서는 미리 계획하시어 많은 참석 바랍니다.

March 14(Thur) ~ March 17 (Sun), 2013

PACIFIC PALMS HOTEL

1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91744

www.pacificpalms.com

3월 17일 이후 3박 4일정도의 남가주지역 관광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